

어머니

노래동무회 악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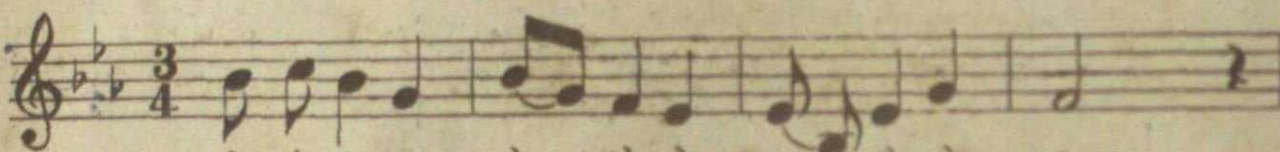
尹石重 詞
鄭淳哲 曲



밤에 자다 이불을 거터차면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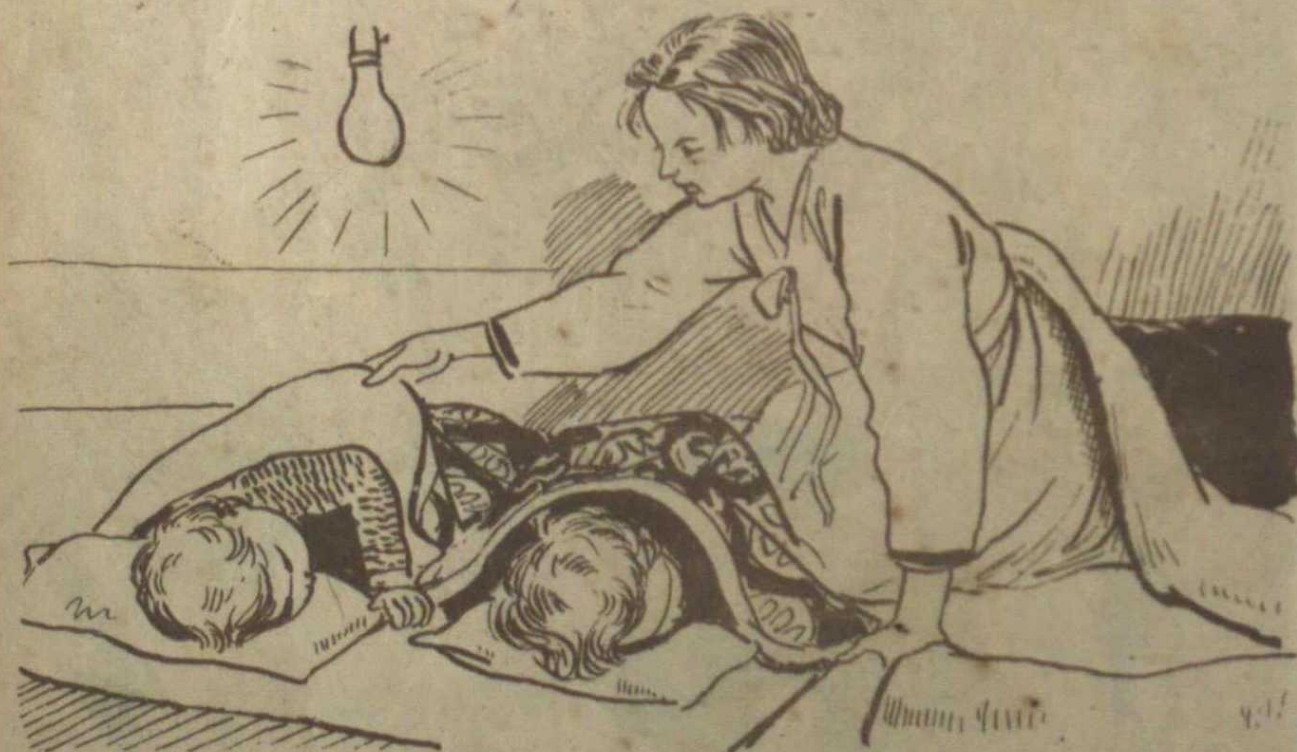
깜짝 놀라 도로 잘 덮어주세요



어머님은 단-잠이 드신 뒤에 도



어머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소학생

1948년 3월 1일 발행

55호 ★ 3월치

차례

동요·광자광 정태성(5)
 동요·조물꾼 박준경(11)
 소설·학아닌의 여인·복구성(14)
 소설·소년 윤숙기 박태현(22)
 연가·소년의 자살정철 이성호(30)

우리 과학 좌담회 --- (4)

★과학을 잘 배우려면 함인철(7)
 ★과학의 중요 김지현(12)
 ★과학을 잘 구경 이광수(27)
 ★유물론 구경 박오성(29)

악요·외국어 손석영(2)
 수업년의 모국어 (19)
 제정 구경 이성철(20)
 그림 세기 김승환(23)
 사립을 잘 구경 (24)
 연가·과학정주 한영서(25)

○이웃을 잘 구경 (4)
 ○나를 위하여 (7)
 ○나의 생활 (10)
 ○소년 생활 (13) 소년문예 (18)
 ○유물론과 소년 (20)
 ○이웃을 잘 구경 (24)
 ○유물론으로 (27)

수업을 잘 구경 (16)
 수업년 (20)
 수업의 질 (24) 16년생의 소망 (21)
 생활 (30) 소년문예 (18)
 기원 (28) 연가 (25)

출판사 (3)

정현웅 · 김순환 · 김희문
 김기환 · 조영진 · 최수진
 편집 (3)



정현웅 · 그림

우리 과학 좌담회

윤 석중 선생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잘 아 나가는데 얼마나 소중한고, 더군다나 우리 조선사람이 이걸 나리에게 있어서는 과학 정신을 북돋아 일으키고 퍼뜨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다시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과학 좌담회에 뭉친 여러 과학 탐구와 선생님을 모시고서 과학의 나라 조선에 꿈꾸어 이 좌담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던 이 태규 선생님께 좌담회 거리를 정하겠습니까.

이 태규 박사 이회에 개회한

"제2회 우리 과학 좌담회"에, 좋은 작품을 많이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중에도 훌륭한 좋은 작품이 있어, 여러 분의 관심도 모뎀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상으로 문교부장상을 받으실 것을 축하하고 선생님께서 그 격찬한 고심단원 번지 받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월준 선생 우리 학교의 시설은 일본 시대에는 제 한 바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지금은 별로 없는 까닭으로

그저 쓰러져 버릴 만가도 연구를 저하려 했습니다.

이 태규 박사 그 "살부사"가 어떻게 거르느냐, 그것은 중 남쪽에 구실시오, 월준(월준)에 대한 주의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태규 선생 그것은 "살부사"의 차원 생활 상대에 가까운 생활을 해주면 어떻게 하는지도, 가령 좀 속해다 줄을 타 주나던가, 위에다 줄을 걸어 준다던가 하는 것으로.....

윤 재천 선생 "살부사"는 여러 개 어느 게 세끼를 남습니까?

이 태규 선생 8월 4일부터 9일까지가 생산기라고 합니다. 이따가 관장사나 석왕사 같은데 가면, 세끼를 먹 "살부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럴때는 조금만 건드리고 물이기가 되어도군요.

이 태규 박사 "살부사" 세끼는 내에 무엇을 먹나요? 이 월준 선생 무엇을 먹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디만, 달걀은 뭐도 안 먹기에 저 뿐만이었습니다.

★ 모인 분들 ★

- 이 태규 선생... 수문교부전수
- 조 형숙 선생... 수문교부전수
- 김 동일 선생... 수문교부전수
- 맹 원영 선생... 수문교부전수
- 황 영모 선생... 수문교부전수
- 윤 재천 선생... 수문교부전수
- 김 동권 선생... 수문교부전수
- 이 월준 선생... 수문교부전수
- 이 영노 선생... 수문교부전수
- 홍 윤섭 선생... 수문교부전수

- 백 승현 선생... 수문교부전수
- 변 정시 군... 수문교부전수
- 이 주원 군... 수문교부전수
- 김 용규 군... 수문교부전수
- 이 윤호 군... 수문교부전수
- 김 영준 군... 수문교부전수
- 장 원구 군... 수문교부전수
- 이 경 군... 수문교부전수
- 이 태규 박사... 수문교부전수
- 윤 석중 선생... 수문교부전수
- 조 봉현 선생... 수문교부전수
- 김 은경 선생... 수문교부전수

★피마 파합★

이상한 개구리

여러 분, 개구리하면 모두 물 속에서 알을 낳고, 그리고 온몸이 가 되어 헤엄칠 때니이 소년중앙 물 속에서 산는 중에 점점 크게 자아 개구리가 되어 큰 뱀에 쫓겨 피할 수 없는 습지가 어둡침침한 나무 그늘 사이를 헤엄치며, 그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은 아주 익숙하고, 수영선수 노릇을 한다는 것은 타할 아시지요? 그러나 여기 함으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수 헤엄을 조금도 할 줄을 몰라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 빠져 죽는 개구리가 있습니다.

남 아메리카에 사는 일종의 개구리는 바닷물을, 그리고 바닷가 못만 정아(平野)를 살서 생활하고 만약 잘못하여 물에 빠지지만 하면 헤엄을 못치기 때문에 빠른 잠기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또 남양(南洋)의 바위에 군도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팔기다리가 아주 길며 그 사이에는 막(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무에 올라갈 수 있을뿐만 아니라 팔기바사이에 있는 막을 펼쳐서 어류까지도 부리 쳐먹 거지요 남아메리 수도 있더라니 믿거나 놀랍습니다.



이 영노 선생 씨는 잘 아 마 나옵니다. 필이 불은채 지 물 도의 눈을 적을 보았으 니까요.

이 태규 박사 "무궁화"에 개 국지는 경북 울진군에 살던 구화선 모양이며, 이변한 작으로도 연구하셨습니까?

영 월영 선생 떠날 전까지는 별로 연구가 없었는데, 떠 남이 되고 나서는 국가적 정황에서 연구할 뜻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 경북에는 기속 사와 원근 할 마당에 이곳 이 잡았던 작함으로, 이것이 아마 직접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전라회까지 꽃 하나의 개화(開花) 시간이 다른가 습도, 온도, 습도 같은 것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 학생들의 연구의 시 적이었습니나. 학생들이

300 속 전구(電球)를 가져다가 밤을 세워서 빛 사루 며 꽃이 피고, 습도는 일만 때 전등 불 켜에서는 어둠 지 꽃이 피는가 하는 관계 를 알기 위하여, 학교에서 3 일 동안이나 밤을 세운 모양입니다. 꽃이 피었다 오르면다 하는 것은 불과 3일 동안이므로. 그때 이 령지 꽃 피어 있는 시간이 짧은 것을 알고 대단히 놀 나실라고군요.

이 태규 박사 대판과 개미스 립습니다. "무궁화"라면 길 에 심어도 일본 늑아 잘아 가면 잎이 생각납니다.

영 월영 선생 "무궁화" 꽃은

저녁에 오르면이는데, 밤 무 시부터 세 사 사이에서 어둠 속 피어 있게 됩니다.

이 영노 선생 밤 무 시에 피 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일 니다.

이 태규 박사 그림 초 점성 남, 비 올 자제하 대가해 주 십시오.

조 별의 선생 교과서의 식물 도 공판하는 것을 질타기 위하여 자질을 박았습니다.

그때 하룻밤 학생들과 잠 이 세워 본즉, 새벽 다섯 시에 가서 꽃이 피어요.

그런데 그 동안이 한 30분 가량이나 걸렸더군요. 이 것을 사진으로 찍은데 필 데에 꽃이 풀기 때문에 찍 어 놓고 보니 꽃 위쪽지만

박히졌더군요. 그래서 하룻밤을 이사하고 말았지요.

그 때 발견한 것으로는 전 등 아래서는 꽃 피는 속스 가 더디고, 기류가 우위기 면 새벽 다섯 시 가량이서야 겨우 피는 것을 알았 습니다.

이 태규 박사 "무궁화"가 리 켜 온풍을 한다는 것은 내 단히 재피 있습니다.

조 별의 선생 "무궁화"는 추 운 지방에서는 피지 못합 니다. 조실애는 황해도 이 남에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어지지요. 남으로는 인도 지나까지 있고, 일본에 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태규 박사 네 고 말씀니다. 요번에 "남산 식물"(南山植物)을 연구한 이승호 군,

이 태규 박사 네 고 말씀니다. 요번에 "남산 식물"(南山植物)을 연구한 이승호 군,

이 태규 박사 네 고 말씀니다. 요번에 "남산 식물"(南山植物)을 연구한 이승호 군,

이 태규 박사 네 고 말씀니다. 요번에 "남산 식물"(南山植物)을 연구한 이승호 군,

이야기를 좀 물어 주십시오.

이 윤호 군 저의들은 남의 연구 안찬 부분을 연구해 보자고 의견이 일치되어 등무셋과 방화 등안을 이용해 "남산 식물"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산에 일 아홉 번이나 올라가서 식물 채집을 한 것입니다.

이 태규 박사 대개 몇 종류나 되나요?

이 윤호 군 한 100 종 가량 되나 봅니다.

이 태규 박사 이 영노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 영노 선생 남산이 가까운 까닭에 우선 산산 식물부터 채집하여 온 것입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채집 방법, 누르는 방법 등, 기초적인 것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학생들 네 명이 크롬을 지어 산 풀짜기를 잘살이 뒤져가며, 무어 1200 권 300종 이상이나 되는 식물을 채집하였고, 그에

대한 기초가 이제 반듯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미모자"는 8월 16일 날 학교 마당에서 발견한 것인데, 화분에 옮겨 심어 몇 방 안에 갖다 놓고, 여러 밤 온도를 맞춰가며 실험해 보았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잎을, 오므리는 풀인데 양지나 발은 곳에 있는 것이 그 오므리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떡물 선생 "미모자"는 남아메리카 원산으로 그 수축 운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태규 박사 대단히 재미나는 풀입니다. 이제서 손을 대면 오므라들게 되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영노 선생 "미모자"에는 평평 세포가 있어, 유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무슨 불전에 다지기만하면 올라가고, 또 자극 불전에 이를 통하여 이전하는 까닭에 움

직하다고 합니다.

이 떡물 선생 그것에 관해서는 "무상화"의 회전 운동이 아울러 더 관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화"에 있어서도 같은 회전을 볼 수 있는데 많이들 연구해 주십시오.

이 태규 박사 그러면 직면하는 국민학교 아동의 작품이 많았는데, 올해는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또 동학년 가르치기에 정군이 "개미의 길" 모형은 만들어서 아열 상을 받았는데, 이 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게 되었는데? 선생님만 만들라고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뢰어라시?

이 정 군 씨의 선생님이 장난 말로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시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으면 대단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이 태규 박사 꼭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미국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이

동요 감자꽃 권태응

자주꽃 핀건 자주 감자
파보나 마나 자주 감자
하얀꽃 핀건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그림·정 현동)

것을 만드는데, 어디가 제일 어려웠습니까?

이 필균 원장님도 그렇다 라는 장식이 제일 어려웠어요. 이 태규 박사 다음으로 아철 상을 받은 "수필의 정령"인데, 입상자라 이 자리에 못쓰셨으니, 축하하신 선생님께서, 어디가 재미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황 영모 선생 "수필"을 주제로 유미관 위에 전기 스카프가 나뉘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유미에다 질한 정경 속에 철쭉을 이용해서, 선지를 통하여 한 장의 그림이 있었습니까.

김 동일 선생 잘 그 유미를 이용한 것이 재미 있는군요. 특히 물이 다 보이기 잘 되어 그럴듯 해요.

이 태규 박사 내, 이번에는 "전기 울간"에 대하여도 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원장님에게서요.

김 필균 원장 새니오를 만지다가 만지다가서 미어 미어 부우 소리가 나기에 거기서 안아들 일어 가지고 그것을 팔로로 연구하며 차차 깨달아서 나가니까, 나중에 공극 소리 같은 것이 나오군요.

재미는 집에 있는 흰 테이프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항이 많은 실험을 높은 소리가 나는데, 재료가 많지 않아서 실험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하겠습니다.

이 태규 박사 "전기 울간"은

창재미 있던데요. 성모 중학교의 장 원구 군은 "전기 기관차"를 내서 저울시도 우리의 최정상을 받았는데, 잘 군도 참....

김 원구 군 처음에 모오리를 만듦하고 봉우리와 선생님께서, 그에 관한 책을 빌려서 보았으나, 별로 신기한 것이 없어서, 나중에 신중기를 만듦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그림에서 전기 기관차를 보고 그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들게 시작했는데, 그때는 막대한 것이 있어서 곤란하던 중, 마침 어떤 여학생이 집에서 가지고 오는 장난감 전차를 전선으로 연결해서 가지고 바퀴를 만들어 만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과 재료가 부족해서 완결하지 못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완전한 것을 만들어 보고 합니다.

이 태규 박사 여러 가지로 고심한 것이 재미 있는데, 어린 동생에게 보여 주게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것은 대단히 감격하는 바입니다.

김 동일 선생 작년에도 "전기 기관차"가 입선되었었는데, 이런 것은 많이 고심한 자취가 보입니다.

이 태규 박사 다음 "무선 조종선"을 출품한 정복 중학교의 학생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대신 김 선생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황 영모 선생 그 작품을

★피마 파와★

빛나는 바다 이야기

빛나는 바다를 지나가려면 때때로 해 밑에 파로스란 빛을 내는 것이 있어서, 그 파로스 빛이 물결을 일으키면 마치 은빛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빛나는 파로스 가운데로 들어 서기만 하면 환한 빛이 나오는데, 높은 "파로스"까지 비추 볼 수가 있으며, 갑판(甲板) 위에서 신원이나 벽 같은 것을 뒤로하면 빛이 상으로 환하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히 이상히 여겼습니다만, 여러 학자



들이 그 이상한 파로스 빛을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광출(發光出)이라는 아주 크고 큰 별들의 수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술 대기만 한 적은 것인데, 그 물결이 가운데에는 별장도 누르누르한 점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 이상한 점들이야말로 사람들을 놀리게 한 그 환한 빛을 내는 신원(神源)이 되는 것으로, 그것이 수만, 수 억만 마리가 모여 있을 때, 해가 그 근처로 가까이 다가 들어 파로스 빛을 줄일 때면, 그것이 자꾸이 되어 그 파로스 빛을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최 시도한 유 신호 군은, 무척 전기에 퍼 위미가 있는 모양인데, 학교에서는 전기 실비 같은 것이 고장이 나더라도, 그 학생이 잘 고쳐 주므로 전문가를 불러 부를 필요는 없습다. (웃음 소리) 송풍기가 까치에는 여러 가지 곤란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때는 음직을 굽어가며 동우들과 남모를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만물고 나지 못해다 띄워 본 즉 송풍기가 잘 움직이지 않으니깐 모두 그만 옮기까니 한 모양입니다.

이 태규 박사 그런 학생들을 가지신 것은 교장 선생님이 과학자이실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철 선생 분상 사장상을 받은 경동중학교 이 주현 군의 "균합 모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주현 군 그는 원래 모형을 좋아하여 미려기 모형 균합 모형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과학 잡지에서 균합 모형 안드는 법을 보고, 이것을 그려 나무로 만들어서 네 것인데, 먼저 예상에는 50시간이면 될 줄 알았더니, 해 보니까 60시간 이상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시찰의

이유가 없어서 실은 재 마 모가 많은 것을 넣습다.

김 공권 선생 무슨 일이 모두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기성품은 안 썼대군요.

조 병욱 선생 이 군의 동생도 송풍했는데 가정에서 이해가 많으실지요? 학생분이 학교 질서도 가정에서 이해해 주지 않는 까닭에 가진 제우를 마음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수가 있으니까요.

이 주현 군 거의 아외식제서는 손재주가 좋아서 나무를 깎아 주시기도 했습다. (모두들 웃음)

이 태규 박사 그러면 그 밤에도 퍼 재미 있고 풀방안 것이 많았는데, 거기서 느끼신 것이 있으신 것 같아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 동일 선생 작년 술을 통하여 화학 실험이 처음인데, 이것은 힘이 드는 일이라 오마리 더딘한 일일 것지만 어떤 실험 중에 "아니스" 실험이 있었지요, 그것은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세틸렌 풍사기" 같은 것을 보아도, 증기(蒸氣)는 스담 엔진으로만 움직이는 것으로 아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세 방법이 이

용되어 있고, 기공 제동 같은 학교 5학년 생의 "신의 기억"을 모더하고, 삼의 어떤 가지 기억을 단적으로 표시하고자, 손으로 모형을 만든 것이 재미가 있었습다.

김 공권 선생 전학생으로 느 전파를 지도한 마더 반장 하였습니다. 과학에 있어서나 일상 생활에 있어서나 모른 것이 있어서, 항상 어떻게 하는가의 의문을 품는 것이, 대강과 구체화에 이같이 가는 제일 가까운 길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교육적으로 시행을 개혁하는 길도 저정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새로오오오 어린아이를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의무를 우선 세도의 규칙 같은 것 때문에 억누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공부 실험 같은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가장 상례라고 모겠습니다. 쓰는 것만이 공부고 공학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잘못된 생각부터 모혀야 되었습니다.

이 태규 박사 여러 가지로 재미 있는 발명품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다. 그럼 시간도 거의 걸린 모양이니 좌담회는 이만 그치겠습니다. (끝)

입학 준비에
국어 공부에
를리기 쉬운 말

이 영철 지음

값 30 원 · 지방 중로 10 원 · "아침" 판권

노래를 잘 부르는 법

인 인현

이러한 것은 같은 작곡 동무도
 알고 노래를 잘 하는 동무도
 없이, 꼭 부릅시요? 어떤
 이런 노래를 잘 부를 수 있
 하? 나로 추측하 같이 노
 를 잘 아 있으면, 악예의
 도 나가 보고 방송으로 배웠
 던 하고 노래 잘 하는 동
 무가 부르는 나머지 어떤
 것을 잘 할 것이 한 부분이 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오늘날과
 어떤 노래를 듣고 잘 하는
 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런 노래를 잘 부르고 노
 라기 전에, 잘 하는 노래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 날은 지금까지
 소리만 배우면, 다 잘 하는
 데라고 생각하셨나 있었습
 니까? 그리고 노래 잘 하는
 것은 다 목소리 고운 동무,
 목소리 고운 동무는 다 노래
 잘 하는 동무라고 생각한 사
 람이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러
 나 목소리가 좋지 못한 사람
 이 나는 목소리가 나쁘니까
 배는 알만 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하고 피팅까지도 없이
 안 되고, 다 같이 노래를 부
 르고 즐기려면 할 음악 시
 작가도 싫어질 동무들도 많
 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다
 그릇된 생각입니다. 목소리
 가 고운 것도 좋지만, 노래는
 목소리 좋은 사람만이 부르
 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고 목소리만 고아가고
 노래를 다 잘 부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날이 잘
 한다는 노래를 나는 어떤가
 지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 하는 노래를
 물어 본 적은 적 적은 것 합
 니다. 몇 없이 몇 되는 목소
 리도 많고, 어떤 곳의 흥대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좋지 못합니다. 특히
 노래하는 도중에 음정이 안
 고 보기도 많은 걸 한 때에는
 거이 많음이나 흥대가 거나 대
 며가 거나 허모 그릇을 잘 안
 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박
 자를 악보대로 부르지 않고,
 잘 박자 받의 길이로 노래하
 야 될 곳을 잘 박자의 길이
 로 부른다면, 또는 한 박
 자 길이가 있는 곳에서 무
 박자를 쉬고도 어디를 어떻
 게 불러지 불렀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번히 많은 것 합습
 니다. 이와 같이 노래는 음정
 (音程)도 바르게 불러야 할
 것이요, 박자도 바르게 불러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

슨 노래든지 슬프게 부르
 는 사람, 또는 그와 반대
 로 조롱하 같이 할 노래
 를 행진곡, 行進曲처럼 무
 뚝뚝하게 부르는 사람이 많
 습니다. 가사를 잘 읽고 무
 엇을 노래 한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부르는 사람이,
 저 식은 못 합니다. 여기서
 다 힘으면 이때까지 잘한다
 고만 칭찬을 받아오던 사람
 도 아직도 자기는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지 잘 깨
 달았음을 압니다. 그리고 잘
 못하던 사람들도, 잘 한다는
 노래라는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았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
 때까지 목소리가 나쁘게 노
 래를 못한다면 생각하던 사
 람들도 이제부터 다시 하던
 된다는 새로운 점이 나지 않
 습니까? 목소리는 앞으로 일
 마든지 고아질 수 있고, 좋
 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
 러 날은 부러우며 하루가 다
 모르게 자라가는 거리가 아
 닌니까? 여러 날의 기가 차
 라는 것이 힘이 목소리도 자
 람입니다. 여러 동무들은 지
 금 목이 아프서, 목소리가 좋
 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노
 래 할 때에, 목에 너무 힘을
 주거나 하여서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데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나르다코만 생각하
 면 여러 날의 목소리도, 지금
 보다는 앞으로 더 고아지고 좋
 아질다는 사실이 무어보다도
 기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잘 부르려면

어떤 것을 더 잘 알아야 하나? 어떤 점에 주의할 것이 하나? 하는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러 분이 학교에서 노래 공부를 할 때, 대개, 삼학년 때까지는 선생님이 칠판에 가사만 쓰신 것을 보고, 선생님이 부르면 한 마디씩 따라 부르거나 노래를 배우거나, 선생님이 피아노나 율간으로 곡을 치시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서 노래를 불러서 배운 줄 압니다. 이와 같이 공부하는 법을 청창법(聽唱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 오. 육학년에서는, 청창법으로 노래 공부를 하지만, 대개는 악보를 보고 음정을 머리 속으로 생각하며, 악보를 읽고 쓰는 가사를 붙여서 노래 공부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악보를 보고 노래 공부를 하는 법을 시창법(視唱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주점 노래를 들려줄 수는 없으니, 청창법의(依)하여서 공부하는 법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로 시창법의(依)하여 공부하는 법을 쓰겠습니다.

먼저 청창을 할 때는 물론

시창을 할 때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을 몇 가지 알아 보면

1. 바른 자세(姿勢)

글씨를 할 때는 글씨를 바로 쓰기 위한 자세가 있고, 제조 할 때에는 제조를 하기 위한 바른 자세가 있는 것과 같이, 노래를 할 때에는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한 바른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이 노래를 부를 때는 앉아서 부르는 때도 있고, 소풍이나 율동 같은 것을 할 때에도 행진할 때와 같이 하는 때도 많이 있을 줄 아나, 역시 노래 공부를 할 때의 기본(基本)이 되는 자세는 서서 부르는 자세입니다. 서서 부르던 다른 때 보다는 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고, 전장에도 해롭지 않은 자세입니다. 서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특히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더욱 좋은 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 목 안에 무리함 형을 구

먼, 피아노는 소리가 나지 않아서 부르는데 못하게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목도 아프게 되니 목을 너무 주지 말고, 목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할 것. 목을 너무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너무 당겨 목을 압박(壓迫)하지 않게 목을 압박하면 내보낼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없고, 오히려 목이 통한다.

2. 노래하면서 머리를 흔들거나 몸을 흔들거나 하는 것. 이것은 한 번 피곤이 된 사람은,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노래를 할 때 너무 비위를 속이지 않게 세운 줄을 늘이게 할 것.

4. 가슴은 가깝게 짓하고, 가슴과 어깨에는 힘을 주지 말 것.

2. 숨 쉬기

여러 분은 이야기 할 때보다도, 노래를 부를 때에는 주의하여 숨 쉬기를 하지는 하나요? 숨 쉬기는 노래의 한



★ 권 제 (문호)

재물을 잃는 것은 다소의 손실, 명예를 잃는 것은 다대의 손실,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의 손실이다.

동력(原動力)이 됩니다. 안일 노래할 때 마음대로 숨을 쉰다면 노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에는 특히 다음의 삼은 법에 주의하도록 합니다.

ㄱ. 숨은 코로 쉬는 것이 위생에도 좋으나, 코로만 숨을 쉬어서는 노래하기 어려운 때가 많으니 노래할 때에는 비개 코와 입을 같이 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숨을 끌어 쉬면 성리가 굳어지는 것이 좋으며, 숨을 쉴 때마다 어찌든 오도내지거나 가슴에 힘을 주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험가슴으로만 숨을 쉬면, 노래하기로 거북하고 좋은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더우기 위생에도 좋지 못합니다.

ㄷ. 숨쉴기 원인은 노래 공부 시간 뿐만 아니라, 공기(空氣)가 맑은 곳에서 쉴 때가 또는 길지 쉬는 연습을 하면, 노래 공부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ㄹ. 실지로 노래를 할 때에는, 노래가 시작이 되면 곧바로 눈다시 숨을 드려 쉬기 때문에, 숨이 가쁘고 할창(合聲)을 할 때 같은 때는, 첫 소리가 다 같이 나오지 못하게 되

동요 초롱불 박은종

초롱불 하나 호—이,

떨어서 깜박깜박
어둠 타고 내려온다.

하늘엔 별 일곱개 반짝반짝
밤 길이가는 고갯길에

초롱불 하나 깜박깜박
줄며 내려온다.

언니가 돌아 오는가와.....
초롱불 하나 호—이.

(그림·김 의환)



는 때가 많으니, 노래가 시작될 때에는 자작되기 확전에 떨어서 맑고 숨을 따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노래하는 중

에는 숨을 쉬는 곳이 없으니, 생포(V 또는,)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숨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생포가 있는 곳에서는 물론 숨을 쉬어야 합니다.

3. 바른 말소리

이러한 문장의 띄어쓰기나 띄어쓰는 노래를 가난히 잘 알아 보면, 노래의 말이 똑똑히 알아서, 무엇을 노래하는지 모두 알 수 있는 때가 많습니다.

노래는 말을 음악(音樂)으로 나타낸 것이니까 말소리로 똑똑하게 노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장의 잘 부르는 삼포끼 노래의 처음에, "삼포끼 도끼야" 라는 곳을 "삼포끼 록거야"하고 노래하는 것을 똑똑히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공노래"의 처음에 있는 "술을 주는 문밖말 것이 눈 녹이요"를 "—자 지 눈 녹이요"라고, 자신의 일자의 노래를 안대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어나 웃으십니까? 그리고 "낮에 나온 반달" 노래의 일 절 끝에 "말랑말랑 제워 왔으면" 라는 곳을 "말랑말랑 제워 왔으면" 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글자를 보고 그대로 말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말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일일이 들어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말씨가 좋은 말을 노래 할 줄 모릅니다. 활이꽃 노래의 처음에 "활이꽃 산에 활이꽃" 라는 "활" 자에 사 발씨가 있다고, 몇하고 몇 소리에져 소리로 잘못되어 "동산"라고 부르는 데문에 이 어찌야 할 노래가 못이되고 맙니다. 이것은 역시 "왜—스름산"라고 불려야 합니다. 활이꽃의 잘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길에 귀뚜"의

술 길에 보"우—은 일제"라고 불려야 할 것이요, "활이꽃 산에 활이꽃"의 활이꽃도 역시 "스—우"라고 노래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씨가 좋은 것은 한 사람이 좋은 그 글자의 말소리(말 하면 발자의 수를 말 함) 그 음부의 길이만큼 열거 부른 뒤에, 말끝을 끊어서 불려야 합니다.

그리고 노래의 활음이 똑똑히 못함으로, 말이 분명치

못한 것이 많합니다. 아, 아, 오, 우, 라고 해서 구에 일문 말소리 내는 일문만 있어서, 아, 오, 예, 같은 소리의 활음을 잘 나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말소리의 연음을 많이 해야 할까.

-계속-



문구부 원수국 편찬자 김 세 태

사 권 (四季)

(1) 사권이 생기는 까닭

그러면 1년 중, 때가 또 이는 시간 곧 낮시간이 변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그리고 때가 들고 때가 지는 방향이 달라지며, 때가 지나가는 길이 변하여서, 때의 고도가 낮에 갈아 끼칠 때 작아졌다 하는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습니까?

지구가 어떠한 운동을 하는가, 몇지 이까저란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구는 달빛이 돌출대로 한 고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합니다. 그와 동시에 지구는 1년에 1회 의 공전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구가

북쪽으로 서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도는 때(時)에 대해서, 밑줄이가 66도 볼 지수(緯度)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적도와 극(極)은 33도, 밑줄이가 됩니다. 이렇게 지구가 북쪽으로 서서 도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기울어져 도는 것이, 밑줄이 낮의 시간이 변하고 때의 고도가 변하여서, 공전을 가운 저를 사권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아시려면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밑줄이가 오른 편으로 지구의 편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북극은 언젠나 그림 잘 오른 편에 있습니다. 동쪽은 북극이 위의 말대로

고, 하지 때는 북극이 더 북으로 향하여, 춘분 때는 평도가 거의 평행하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더워졌다 쉬었다가 온도가 변하여 사철이 생깁니다. 춘분과 추분의 지어에 지구가 오면, 태를 적외선에 보지 적외선 반사는 태가 지평선 위에 있고 반사는 태가 지평선 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밤낮의 시간이 짧습니다. 지구가 하지 자리에 있을 때는 북반구(北半球)에서는 태가 적도보다 북쪽에 보이고, 따라서 태가 지평선 위에 있는 시간이 길어, 낮시간이 밤시간보다 길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구가 동지 자리에 있을 때, 태가 적도 아래에 오면 역경은, 북반구에서는 낮보다 밤이 길게 됩니다.

북반구에 있는 태가 적도의 북쪽에 있을 때, 남쪽에 있을 때보다 태의 하중평균 높고도(平均高度)가 크니까, 태에서 오는 열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이 길어질수록 태의 평균고도가 커진다는 것이 두 가지 이유로, 태가 적도이 북에 보이기 때는 태에 따라 차와 온도가 올라가 여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도이 남으로 갈수록 태의 하중평균고도가 작아지는 까닭으로 온도가 작아져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끝)



귀신 들리는 때 딱 소리 댈다

귀신이 먹을 것을 좋아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왔다. 그 사람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할 것 같고 있다는 뜻.

개 눈 갈수록 뿔다
 개와 눈은 다른 짐승의 눈과 달라 특이하게 있는데, 개 눈에 무슨 위험이 있을 때에는 얼른 주먹으로 갈라 버린다. 동자가 아주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통 짐승을 말라 먹는 모양을 이렇게 말한다.



나감 농의 뿔은 있어도 자는 농의 뿔은 없다

계요론 사람을 깨어있는 데 쓰는 말, 음해받은 것을 다룬다. 땅에 나감 사람은 관아를 지르므로 모으니까 그의 뿔은 남지 구워야지만 자는 사람의 뿔은 남지 않게 됩니다.



농 가리고 아웅

나쁜 것을 하고 나서 그럴은 남이 할 것과 제 귀를 가리고 악부 소용이 없다는 말. 나쁜 것을 하면 거꾸로 말로가 되는 것이며, 많은 죄로 남을 속이며 태도 속지는 않은 것이다.



(그림·김 위원)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복극 상 지음
정현웅 그림



24. 무서운 곡마단의 때

문지기 늙은 사자를 묶어서 바깥 벽 밑 기호에게 말자 무도 살호는 내담스런지 그 무섭고 캄캄한 바깥의 문 안에 들어 가서 문지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 붙어 가니 실기는 하기도, 어디로 가든 어느 방으로 붙어 가는 것도 모르고, 그 안에 몇 개 방이나 있는지 영문을 몰라 서, 우선 여기 앉아서 동정을 살펴 보아 가지고 붙어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 집 속은 꽤 낡은 모양이어서 조금도 사람의 말소리 듣는 기할 것도 들리지 않고, 가끔가끔 여러 사람의 손뼉치는 소리가 딱 떨어지듯 가늘게 울려 올 뿐이었습니다.

이 무서운 바깥 속에 들어와서 여러 놈들의 손뼉 소리를 들으니, 그 집의 깊고 우중충한 것으로부터, 무시무

시한 것으로부터, 마치 뱀코르고 지옥 속에 기여 들어 온 것 같아서, 제삼스럽게 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바깥 일은 기호가 한 말만 보며나 하고 밀고 살호는 안쪽 손뼉 소리 나는 그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가만가만 한 침묵 한 침묵 내뿜어 가 보았습니다. 기침 소리만 조금 나면 말이 날듯 하여 숨을 죽이고 영급영급 발을 떼어 놓는데, 그 때에 한 뜻 사람의 기척이 났습니다.

“이제는 풀렸구나!”

하고 뚜렷하여 가마이를 떨면서 우뚝 섰습니다. 고개도 까마 못하고 섰느라니까, 저 등 뒤편에서 어떤 놈이 왔는지 대문을 푹푹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호는 그새야 조금 제 정신을 차리고 마음이 놓였으나 그러나, 들어 오는 놈이 어떤 놈인지 얼굴을 맞닥뜨려 가지 않고 어떻게 절는지 제삼스럽게 가슴이 뛰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푹푹 두드리는 것을 세 모지는 알았으나, 물론 얼굴 편을 찡 찡 하니 살호는 사뭇 겁이 가서 떨떨떨 떨을 일으키고 얼굴을 내어 밀고 보니까, 거기 와서 기호 같은 일 본 보기도 살호 사람 같아 보이는 놈이 서서 살호의 앞에 왼손 주먹을 내어 밀고 그 위에 오른손 두 손가락을 얹어 보이므로, 살호는 얼굴을 숙인채 사철이불 막 대고 문을 활짝 열고 그 놈을 안으로 붙이었습니다.

그 놈은 밀고 눈치를 세이 지 못한 모양일지, 그냥 두터 두터 전어서 어두운 구석을 한 걸 같이 안으로 붙어 가는 거라, 살호는 문을 잠그는 것도 잊어버리고 대답하지 않은 큰 놈의 귀를 따라 꾸뚱꾸뚱 걸어 붙어 갔습니다.

그 놈은 아무 의심도 없하는지, 의심하면서도 무슨 동계로인제, 문지기(살호)가 재에 서서 붙어 가는 것을 떠

히 일면서 아무 말 없이 그 남 건이 가고, 살호는 이부 손 숙이라 편에 딱 붙어 서 듯 가깝게 서서 따라 들어 갔 습니다.

25. 부서운 죄악 내용

희미하게 불빛이 떠져가는 하얀 오솔하고 밀려난 밤 을 색이나 붉고 지나서, 또 아래로 내려가는 험악한 층짜 를 색이나 비늘이 내려가니 까, 바로 그 일 방에 모여 있는 성 사방울일 소리가 귀 밑에서 들리는 것 같은지와 살호의 가슴은 떨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모 로 돌아갈 재주도 없어서 살 호는 활기만 잡히고 잡히던 죽은 성 지고 그냥 따라 들 어 왔습니다.

앞에 걸 키 른 눈이 땅분 을 일으켜 끌어 서자, 살호도 같이 서서 보니까, 거기는 마 치 학교 교실을 들을 연희 는 것만같 모고 넓은 방에, 전기 등 은 다섯 군데나 달리어 밝 기가 낮갈은데, 무슨 회의인 지 한 30 여 명 되는 사람이 저마다 절상에 걸려 앉아서 단장의 얼굴을 쳐다 보고 있고, 아까까지 권물같이 것 을 하면서 전이 으면 승정스 럽고도 흥악한 단장은 일어 서서 환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여 앉은 사람 상에는 줄 조웃을 입은 사람이 10 이 번 되고, 나머지는 모두 양복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여자가 단장의 마누라까지 합쳐서 다 첫 사람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붙어 서니까 단 장의 연설은 꼭 그치고, 일 제히 무슨 호령이나 깃발이 뜨른 사람의 얼굴과 눈이 두 사람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이제 죄는가 싶어서 살호 의 가슴에서는 갑자기 두 말 일이전을 지는데, 키 큰 살호 는는 작려를 하고 서서 단장 의 얼굴을 노려 보면서 세조 라듯 힘을 몰아 댄은 구벽에 오른은 두 손가락을 얹고, 섰 는지라, 집나는 중에도 살호 는 그대로 흥미를 내고 있습 니다.

환한이나 서로 마주 본 후 에 단장이 고개를 아래로 고 려하니까, 키 른 눈은 그제 야 잔잔할 절 상에 앉는지 라, 살호도 그 래로 그의 열 진성에 앉았 습니다.

모여 앉았 는 중에는 꼭 마단 단장의 발음을 받들 사무원이 너 몇 사람 섞여 앉았는 모양 이었으나 그러 나, 살호가 로 밑에 수업을 붙이고 있고 모국마련의암 호까지 익숙

히 하니까, 먼 못에 갔다 온 자기비 부하로 알은 모양인지 아무 말 눈치 없이 단장의 연 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까 말한마와 같이 이번 에는 조선 서울에 들었을 데일, 두 남매의 모험길 사 건의 생거지, 잘못하면 우 리들의 내용이 폭포되었으 니까, 일문 서울을 떠나고 조선 땅 밖으로 나오는 것 이 적확했다 생각하고 불 야불야 겁을 거꾸어 가지 고 모험의 으뜻 은 것이 요.”

살호는 그것이 자기 남매의 익사기인 것을 알고 정설을 딱딱 차리며, 한 마디도 마지 지 않으려고 두 귀를 딱딱 기 우리고 앞으로 다가 앉았습



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들 높은 아내 잡지를 못하였고, 누이 아이만 잡아 가지고 왔는데, 그러는 틈에 꼭따단 딸이도 못하였거니와, 가사고 갖면 아편을 전부 다 차지해 버리지 못하기 관선이 3분의 1 밖에 못하였는데, 그 수입이 1,300원 ! 나더러는 모로 가지 말고, 또 조실 이럴까는 겨우 일 세 밤 비는 것 하나 밖에는 건너지 아니하이, 그것 하나만 숨겨 가지고 왔을 뿐이요. 그러니까, 동행이 만하면 이번 조실에 끌려간 길은 성공하기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정상 저술서 도망해 오듯 같이 오노라코 그러 될 것이니까, 하는 수 없는 일인줄 아오. 그러면 3분의 2 그냥 가지고 온 아편은 여기 있는 여러 사람이 팔 놓아야 이기서 팔아야겠고 새로 잡아 온 조실 이베이

는 나더가 일 세 살이나 되고 인물이 제법 북쪽하더까, 적어도 150 원 이상은 수입된 것 관조, 그런데 재로히 한 나더 하여야 할 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번에 저술서 저의 식물을 만나서, 도망간 것을 모로 잡아 가지고 온 나더 모(술자의 일본 말 이름)는 이제는 삼만 원도 오려 볼이 있을 이 있고, 또 저의 오라비들이 자꾸 배이 가마고 배를 팔 것이니까, 꼭 마안에서는 한시 마다 그 배의 하는 제주를 허문에 예제 가르히 가지고 일론 나더모를 팔아 버리는 것이 장래이라고 생각하고 있소. 어리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좋겠고, 또 어느 때고 오라비들이 이곳까지 돌아 올는지도 모로는 것이니까, 어리 사람들은 각각 주의하는 것이 좋을 아오.”

있는 상호는 얼굴이 쾌활하여 송장 점이 없었습니다. 아아, 놀라운 비밀 풍악한 피상 ! 그놈들 꼭따단의 무서운 태동에 물서라 저자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꼭따단은 길 묻지에 지나가 못하고, 아편을 가져다 버리지 장사하고, 또 조실의 어필이를 모의거나 들지거나 하여서는 상호 사람에게 팔아 버리고, 아아, 어떻게 하였으면 그 원수를 시원히 갚을 것이겠습니까? 상호의 가슴은 것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이야기한, “술자를 읽어 빌려가, 권에 피리 팔아 넘겨 버리겠다”는 말에 상호의 마음은 그냥 그 자기에게 소이를 거르고 버리 날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차례에 술자가 모이지 아니하니 우선 술자부터 이따 이따리 잠수어 부엌은 자 그것을 한 후에, 단 일이 바, 석저로 익서로 결정을 하



열차 (火車)

철도 역학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기계(機械) 무기(武器)가 생겨

나오기 기공중이다 또는 철도(鐵道)라는 직업은 철차(鐵車)나 하여 아무 될 수 없은만큼 많은 무기가 있어 전쟁의 소용을 세웠습니다. 즉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실의 는 지금으로부터 한 300 년 전,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벌써 이런 무기를 썼습니다. 즉 그 때 조난(湖南-지금 전라도)으로

아 무리를 쓰니 그 위치(威力)가 기함(汽船)이 군용하여 나중에 비활하게 없었나 합니다. 이 화차는 화전(火鎗-폭발하는 물질을 정지한 화살)을 쏘는 데 쓰이면 것인데, 민 이술이 그것을 다시 개량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요사이 전쟁에 쓰는 기공중(機關銃), 또는 활포(獵砲)의 조형이라 할 것입니다.



일출하는 짐승 눈치를 새
기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손일 났습니다.
상호의 일에 그 무실고 장군
장난한 기 큰 주국놈이 가잡
지 후지, 손목을 꼭 붙잡았
습니다. 상호는 잠적 놀타이
제를 죽였고나! 하고 가슴
속의 무로짓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배속을 또 죽일까 하
고 제를 내려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일은 아주 틀려있습
니다. 그 때에 방문이 떨리
기 시작, 천문 뜻밖에 정할
문지기 눈(사자를 묶어 매어
진 방에 기호 군에게 끌려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 왔는
지 얼굴을 펴그리면서 황급
한 기에 들어와 상호에게로
달려 왔습니니다.

"이제는 물렸다!"
이런 말처럼 나심아 될 때,
상호가 계속하던 얼굴은 부러
질 것 같아 아주 꼭 속으터
되었습니다.

26. 이상한 보고

저쪽 나라 말이 무서운 폭락
번의 소금 속에 들어 와서 그
들의 비밀회의에 참관한 것은
집나기 짝이 없는 대답한 모
험이거든, 별안간에 열에 앉
았던 주국놈이 손목을 꼭 잡
고 달려들자, 밖에서 두팔져
뚫어서 기호에게 달려들 문
지기 눈까지 끌어들었으니, 그
때의 상호의 놀라운 가슴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폭락단원이
아닌 것이 틀림없는 것은 물론
이요, 문간에서 문지기를 두
팔져서 뚫어 놓고 끌어온 것
까지-물러 나고, 자기가 지
놀몰아 원수 같이 여기면서
찾고 있는 상호인 것까지 문
켜 나게 되었으니, 뜻 모양이
때에게 이르러 애워 자인 리
은 귀 같이 되어 도저히 참
아날 길이 없는 것을 알기에
상호의 고개는 재차 부러질
것 같이 꼭 속으터졌습니다.

문키고, 잠리고, 묶이고,
죽으려 두팔져 달고, 그럴 생
각을 하면 뚫어 그냥 아스터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도망갈 처가 없는지
라, 아제는 피는대로 피어
라 하고 상호는 두 눈을 막
감고 눈이 저 떠졌습니다.

문지기 단원이 황급히 뛰어
들어온 것을 보고, 단장은 물
론이요, 30 여명 단원은 눈
이 몽글하여 초딩이나 내릴
것처럼 일시에 우뚝 일어 있
습니다. 그러고는 불안해 눈
안 눈을 그의 잔목으로만 쓰
었습니다.

문지기는 상호의 일에 우
쪽 서너나 뚫 팔을 뚫어 한
었습니다. 원은은 주먹을 쥐
고 으름장은 두 손가락만 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팔과
팔을 ×도로 엮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두 번 하고
는 문 밖에서 황급한 걸음으
로 도로 나아가, 몽몽몽 증
계도 바비 올라 갔습니니다. 그

것은 분명히 무슨 급한 일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지기가 그렇게 하고 나가자 모든 단원의 얼굴은 더욱 놀란 점승의 얼굴 같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라!”

하고 단장의 무거운 소리가 내리자, 그들은 우뚝우뚝 울며 모자를 찾아 쓰는 눈, 뽕뽕이를 찾아 잡는 눈, 호루머니에서 수업을 꺼내서 코에 붙이는 눈, 누르고 쪼다듬 안경을 꺼내 쓰는 눈, 제각각 저마다의 준비를 하느라고 제수절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꼭꼭 다물어 말 한마다 하지 않고, 간혹 할 말이 있으면 가만가만한 소리로 남의 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살트는 어 이성한 광경을 보자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급한 경우를 면할 것을 더욱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에는 갑자기 여러 가지로 이상한 생각이 일로 엉켜버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어찌하여 문지기가 눈이 자유포출 물이 되었을

까? 기호의 눈에 붉이어 있을 그놈의 기호를 어떻게 내놓고 물어 왔을까? 하는 궁금한 생각이요, 둘째는 여기까지 쫓아 들어 온 그놈이 어찌하여 자기를 보고도 달겨 들거나 억터 눈에게 말하지 않고 못본체 하고 그냥 나갔을까 하는 생각이요, 셋째는 그놈이 물어 와서 두 팔을 끌어 단장에게 보고를 할 때에 모호모호 그랬는지 알코 그랬는지 자기의 의견 발동을 밟았는지 대적 무슨 일로 발동을 밟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생각이 어저머운 물결 같이 펄펄 들 때에 그때에 떨어진 방한 구석에서 따르르릉 하고 초인종 우는 소리가 요란히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파랑계 걸린 단원들이 눈이 동글하여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계속)

대적 무슨 일이 생겼을까?
기호는 어떻게 된 셈일까?
궁금한 눈자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걸 삼호는? 56호를 기다리십시오.



지남침 만드는 법

같은 철사(굵기는 직경 4mm—9mm)를 길이 10 cm가량 되는 것을 구하여 그것을 남북으로 한쪽을 조금 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북을 향한 끝을 바리바리 여러 번 휘둘러 두드려서 이철사 정도의 철사는 지남침이 됩니다. 가운데를 절로 떼어 팔뚝하게 만들어 놓면 천재나 남북을 가미하게 됩니다.



위에 물이 들어 갔을 때

배수유이나 수영을 하다가 배에 물이 들어 갔을 때에는 밑에서 뜨겁게 된 자살을 위해 배고 머리를 기울이고 잠시 있으면 물이 뚝뚝해서 물이 나옵니다. 드 커에 작은 벌레가 들어 갔을 때에는 불린 건구를 가까이서 털 리게는 밖으로 나옵니다.



초학생 · 중학생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學生朝鮮語辭典

이영철 선생 역음 · 이희승 선생 감수

수정판 제6판 파는 중입니다

값 250 원 · 지방총로 10 원

서울 鍾路 2街 永隆 乙酉文化社 發行

지방에서 漢文까지 하면 郵券 京銀 3543원을 이용하십시오



★야만인의 품치장★

야만인 그림이예요. 여러 분은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림은 나무에야 사람을 끌어 놓은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나무를 쓴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림에 그림을 보십시오. 몇 개의 작은 이상한 것을 어떻게 된 게요. 그것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나뭇 가지에 붙어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쓰고 있으면서 팔아먹고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보라를 쓰고 팔아먹고 다니다니 정말스러운 일이지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도 보십시오. 이 나무에 있는 것이 정말 보라는 나무 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놀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요, 그러면 몇 개의 팔아는 두 사람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은 저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되게 됩니다. 두 사람을 가만 보면

본다.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보십시오. 보라 그림이 붙어 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보라는 나무에 붙어있고요. 보라 그림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만인입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이 붙어 보십시오. 몇 가지 그림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한 사람이 라는 명수들이 아만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만인이라, 오오스오라미아 남달 붙어 있어 살고 있는 야만인들이지, 숲도 없고 밭도 없고 밭도 없고

차 같은 벽면에 이런 그림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어떤 벽면을 보라 그림이 붙어있고 보라 그림이 붙어 있는 것이 품치장이니 아만인은 이상한 일들입니다. 몇 개의 보라 그림은 품치장으로도 쓴 것일지. 지금 이 사람은 저를 내린 채고 있습니다. 이 아만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아만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그림이 붙어 있는 곳에는 "아만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꾸어서 잡으려고 이



런 벽장화 모양을 한 것인데, 사람에게 속는 색도 색지만, 이런 모양으로 세를 속이는 사람도 있으니 무슨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슨 것은 야만인의 화장입니다. 화장이 라고 본을 비르고 그림을 바르고 하는 것은 일입니다. 이 야만인들은 얼굴을 잘도 색도 바르기도 해서, 저기다 잠정 팔장 과망종 색 색 칠감을 넣는 것입니다. 눈 감고 할것 없이 빈틈 없이 이렇게

하는데, 생각 없이 저지 잡도우 집게 채고 잡으려야 하니, 꼭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통이 애까지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 가운데는 이 야만인의 품치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곱대 한 사람은 모기 드물고 몸이나 팔다리를 한 사람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일본 사람들이 최근까지 어떠한 생활을 하여 왔는지 짐작할 수가 있지요.



남대문 (南大門) 재 남아 있는 성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중앙에 있는데, 조선에 열 모다.

3. 개 성 (開城) 이 영 천

삼대는 푸른빛 나고, 물에는 풍 달재 뜨는 봄날, 여러 분을 살수 중. 역사 깊은 천년 고도(古都), 개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신의성 임권강 철교를 건너면



태조릉(太祖陵)

수복은 출장하고, 소학할 곳에 모 십 고의 이즈 활전 임금님의 능이 다.



두문동(杜門洞)

고의 왕조가 이 절계의 온으로 넘 어 개자, 한 자람이 두 원강을 심전 수 없다는 72 인의 고의 유적(遺蹟) 들이 물을 순계 만고 뒤추를 마친 곳이다.

서부터, 벌써 개성 태구의 안해 왔은 것으로, 저 유명한 고려인왕 제제의 삼포가, 순애 빛득빛득 갑니다.

그럼습니다. 개성은 고도로, 고려자기도, 고려인왕으로, 고려 고 서울, 평양, 부산 들리는 달 다 순전히 조선 기분이 충추함 도 시요.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 분께서도 다 잘 아시나 싶 이, 왜놈이 다른 곳은 다 먹어 들 어 갔어도, 개성만큼 아낄 수 없 던 곳이 아닙니까?

개성은 개경, 송보, 송악이라 부르는 곳으로, 1,000여년 전 프 러 시즈 활전 임금님이 나라를 이룩한 이후, 40 대 약 480 년 동안 서울이었던 곳입니다.

자카 개성 가까이 이르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인가 앞에 선 비 석들로, 고도에 온 감을 줍니다. 정거장 마은 편이 철도공월, 전달 데 노랑꽃 피어, 나비 발을 부 뜨는 그 앞길로, 동추을 향해 열 미를 걸어도, 시지는 나라나지 아 나라고, 초라한 힘겨움이 들정할 성 보일뿐이니, 이는 왜놈들이 여 기다 심식기를 꾸미려다 이런 더

로, 이런 실책을 밧보거든 오지 개성 들일가 합니다.

천천으로 전일의 고려의 국경 을 요미라던 평양(政陽), 지금의 인삼 전매국을 지나, 시카 중앙 세기대에 방포하면, 남대문이 우 쪽 서 있습니다. 남대문은 조선의 가장 오랜 목조(木造) 건축으로, 모든 걸작품으로, 미술사를 증명 한 것입니다. 이 남대문 아래에는 큰 의공이 달려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경리는 송학산을 바 라보며 북으로 가면, 고려의 역 령이 만월역에 당도합니다. 대강 돌이킬 주수와 주너전 들을제 서 에 말초한 주거리요, 이를 모든 관세물만 볼을 노래할뿐, 지나간 날의 흥성라고 화려하던 영포습 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이제 생각나는 것은 고려의 명성(名臣) 원 천석 어본의 회고서(懷古詩)입니다.

- 홍양이 유수(有數)라니,
- 만월역도 수초(飲草)라니,
- 오백 년 왕업(王業)이,
- 북적(北積)에 불렸고니,
- 적양에 지나는 적(積)이,
- 순물 거취 라느라.

만월역에서 내려와 보이는 푸 수혈 바르 열, 거대한 함석 길이 죽 연해 있고, 그 앞에 철한 빌 더가 널려 있는 곳, 그곳은 인왕 제로정입니다. 이 고려인왕이야 말 로 우리 나라 수운을 잘 흐른 자 마은 푸는 장물입니다.

송악산 기슭 줄그늘 푸른 산길 유람 도로를 걸노라면, 피구기 소 더 들리는 오솔길 상물 계화동을 지나게 됩니다. 이곳은 고려 왕실 의 총리터였던 곳으로 죽음은 강 그 물은 맑아 소동적이 굉장 한 이 있습니다.

다시 더 걸어 성갈판을 거쳐

물면, 석가의 동주 조은 결 불란
이른의 각계(刻啓) 조 영국의 갈
날 아래, 이슬로 사리본 선죽교
피터히에 당도합니다.

이 분이 죽어 죽어,
일찍은 고려 죽어,
백문이 전포(顯士) 이어,
넋이 바로 있고 없고,
일 할만 할만 만물이야,
가실 곳이 있으라.

아아, 백고의 충절을 거셨습니
다. 그러나 그가 읊은 시조, 그가
글린 선죽교의 읊은 시조,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뚜렷이 남아
있어, 국사에 뜻깊은 이의 눈물을
주아내게 합니다.

또 유한 조보로 사남을 올라
서면 승상서원, 정 문주 어른이
우익한 길터로서, 선경의 화상,
경조시인 지룡이, 진적들이 보존
되어 있습니다. 승상서원 바로 위
가 계성박물관, 고려조의 조쪽,
고려자기 등 여러 가지 유물을 수
집해 놓았습니다.

고려자기, 적실에 보면 고려자
기문 현상한은 자명한 일입니다.
고려자기는 미술 공예의 꽃으로
고려 왕조의 예술 문화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 습적이 독특하여 구
전인물화적의 관상과 비지같은 바

모지, 고려 왕조는 풍파하였으나,
고려자기인은 오히려 그 성격(堅
價)를 세계적으로 남기고 있습니
다.

더이 남의문에 이르러, 남쪽으로
보 올망 나가면 경덕궁, 이 성채
하루의 옛 길터로서, 단소날 부녀
자문이 그에 귀카로 꽃밭을 이루
는 곳입니다.

좀 고려로 안내하면 서쪽의 물
길 태조상이 있고, 고려 당나라
송신(遺臣) 조 희선 등 73 인은
이조의 하늘을 아녀 본나오 문을
닫게 받고 타락하고 말았다는 구
물문이 있습니다.

남쪽에 고려 말년의 장차, 왕정
을 다한 최 실 장군을 모신 덕물
살이 있고, 동쪽에 구 길 화상사
가 있고, 북쪽으로 노학으로 이름
높은 화상 사경의 어른의 남서
이 서루정이 있고, 여기서 30 미
밖에 길에 가인(絶代佳人)이요 어
름 시인으로 이름을 드날리던 명
기(茗妓) 화정이라 해서 말한 조
학자요 성인(聖人)이신 서 경덕
어른과 함께 삼포 삼경(三詔)이
라하고 일컫는 50 장(丈) 대폭(大
瀑)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물거품
은 한계불 뿜고, 물소리도 음악을
떨쳐 박연폭포 조르는 살은 편사
절으로 어찌도 조할도 잘라 잘고
있습니다.



박연폭포(朴淵瀑布)

전성 삼경(三詔)이 다다르자, 폭포
의 높이 30 장(丈), 수할타기조 조설
의 깃은가락을 향는 선죽(仙窟)이라.

다음은 신라가 통일하기 전
의 잔 나라이었던 백제(百
濟)의 서울 부여(扶餘)를 구
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살살한 잔 군청 소재지에 구
나지 않으나 그래도 여기 서
기 남아 있는 고려물은 우리
에게 옛일을 속일거라는 뜻
하며, 또 여러 가지 전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선죽교(善竹橋)

가문산(牛欄山) 동쪽 기
슥에 있는 문주전파, 고려
주신 조주 어른이 최주

를 가지신 곳으로, 그 불타
터지는 아직도 최 주신이
남아 있다. 고려조 대의 왕
백제는 명평(名平)한 백부
어른이 부신 승지(澄濟)가
사 있다.



만월대(滿月臺)

승상한 기승에 있는 조
터고서 상할려조 고려 말

년 조주(註)조 조로 하
어 바 비리고 제러해 우를
물안 구려라.

그림· 이야기 孔子춤

김복희
김인희



① 봄이 온 후 사람들은 봄을 즐기고 기쁘게 놀았다. 그러나 한 마을에 사는 한 사람이 겨울에 죽어 버린 채로 누워 있었다.

② 이웃 사람들은 그를 살려 주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마을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를 살려 주기로 하였다.

③ 마침내 그들은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가서 춤을 추게 하였는데, 그는 춤을 추면서 살아 일어났다.



④ "왜 춤을 추게 하였습니까?" "그는 살아 일어났습니다."

⑤ "그것이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⑥ "그렇다면,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를 살리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⑦ "그런데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를 살리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⑧ "그런데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를 살리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⑨ "그런데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정말로 그를 살리는 방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⑩ "마침내 두 사람을 데려 온 사람은 아끼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⑪ "말씀이 맞습니다."

⑫ "그것이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① 조영희와 오수환은
부담없이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②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③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④ 조영희와 오수환은
부담없이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⑤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⑥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⑦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⑧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⑨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⑩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⑪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⑫ 조영희는 두 손으로
대기 앉은 채 한 걸음의
한 바퀴가 두 손은 흔들
거리며 비록 한 손이
술과 함께 자라는 것이
조영희는 두 손으로
제나 한 걸음도 가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소학생·작품집

동요 팽이

서울 장경 국민 학교 2학년 권 병 기

팽이야 팽이
팽굴 팽굴 돌아타
쉬시 말고 돌아타
돌다 돌다 안돌면
종아리 땅땅 칠테나



동요 똑딱선

서울 배동 국민 학교 4학년 최 영 열

뚱뚱뚱뚱 나간다
뚱그라미 선겨를
푹푹푹푹 던지며
쉴줄추며 나간다

뚱뚱뚱뚱 똑딱선
무엇하러 가나요
고기잡이 가나요
손님대리 가나요



동요 어서어서 숨어라

서울 삼산 국민 학교 5학년 김 석 중

술개미가 뿔다
하늘에서 빙빙
빙아리아 숨어라
어서어서 숨어라
고양이가 나왔다
뜰에서 쫓겨쫓겨
쫓아 쫓아 숨어라
어서어서 숨어라



동요 별

수원읍 석상동 2학년 홍 희 준

만쪽만쪽 만쪽만
같이 엮는 천
라나 울릿빛
새어 보리가
소록소록 같이 드는
꿈 나그의 길

비밀을 발견

공통은 사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능인간'
을 발견
하고

가리키는
동봉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만능인간'
의 원리를 발견
하리라...

맛있는 주전자와
뚜껑이 떨어 뜨리는 것을
보고 '중기적화'를 발견
하였다. 이와 같이 발견이
발생은 주어진 어떤
어기 저기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활동 사진

불간사의 무미영 담퍼와
이국의 여자의 힘으로
활동사진이 방형단지
유심(50)년 밖에
안 되었...

고 후
도-기-아
(모리 나비)
(영화)

색채 영화
가 반영
되고...

소리 흉내

① 비오는 소리

찰-찰-찰-찰

② 파도 소리

철썩철썩
철썩철썩

입체영화
까지
사오게
되었는데

냄새 나는
영화는
누가 만들
지 않나?

③ 말의 발 자국 소리

반짝반짝
☆ 리거 ☆

④ 개구리의 우는 소리

개골
개골

⑤ 바람 소리

후-후-후

백문관 구경



서울 국립 박물관 이 규수



- 2 -

덕을 제 이오실(館 二號 室)로 들어 가 보기도 합시
다. 이곳에는 고려 시대와
이조시대의 특유한 물건이
진렬되어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 보 서
의 300년 전후다이 나란히
작과 불탄하여서도 사방에
모퉁이 일어나자 이곳 저곳
에 장단 장승들이 각기 제
4의 범위를 만들기 시작하
였습니다. 이리하여 신라는
흔한 상대에 다스기 때었는
데 지어 635년에 마침내 고려
이라는 장수가 일어나 신라
를 제우고 우리 나라를 마
시 통일하였으니 그 도움은
지랄 계실이었고 지어 1392
년까지 470 여년동안 계속하
였습니다.

이 고려가 건국된 후에 말
어질 것이 이 신라는 고려
말기의 장수가 세운 여의 문
이 역자로 아시는 이조시대인
것입니다. 이 이서조실로 한
500 여년간 계속되었다가 지
중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우
의 나라가 왜놈들에게 합병
당함으로써 끝을 바치게 되

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에서 남은 물건은
무엇보다도 제일 유명한 것
이 고려자기라는 것입니다.
이 고려자기는 본래 우리 나
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배워
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우
의 나라 사람들의 특유한 기
능으로 알리하여 고려자기는
중국에서 만든 상나라(宋)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것입
니다. 이리 문! 자세히 이
세제에서도 유명한 고려자기
를 보십시오.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이리 문은 그 그릇을
그 때의 사람들의 생활과 연
결시켜 자기도 눈 앞에 그리
어 보십시오. 이렇지 모양한
그릇을 쓰던 그비결의 생활
이 어땠을까요? 그 하늘
빛 같이 푸른 색은 비색(靑
色)이라고 하여 그 때 사람들
의 인생관을 표현하는 것이
라고 합니다. 고려시대는 불
교(佛敎)가 성한 때고 우리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북방에
설어난 오랑캐의 나라에서
압박을 받은 시대이므로 일
방 국민들은 불교에서 이리

는 꿈나마를 그리게 되었습
니다. 이렇지 꿈나마를 그리
던 그러한 사람들에서 저 고
려자기의 푸르기도 맑고 모
요한 빛이 마음에 보였던 것
입니다. 그 그릇의 모양을 보
십시오. 그것은 아무도 보아
도 탄탄한 맛이 적고 실지로
일상생활에 세워진 그러한
물건들은 아닙니다. 고려자
기 중에도 청자상감(靑磁象
嵌)이라는 것이 유명한데 이
것은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의
표면을 파고 그릇에 다른 색
을 넣은 후 약을 말라 구운
것입니다. 이 청자상감으로
나타나는 문양(紋樣)에는 어
려 가치가 있으나 화초(花草)
라든지 새(鳥)같은 것이 그
중요한 문양입니다.

이리 문!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이 고려자기가 이때까
지 이리하여 천하에서 왔는
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거
이 전부 그 때 사람들이 무덤
에 파놓았던 것을 파낸 것입
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면, 저
쪽 세상에 가서 이 물건을
쓰라고 하여 무덤 안에 같이
묻어 줍니다. 그래서 땅 속
에서 수 백년 보관되어 오던
것을 돈에 눈이 어두운 후세
사람들이 파내어 온 것입니
다.

위에서로 말하였지만,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성하여 불
교에 관한 여러 가지 용물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이곳
에 진렬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망한 후 이서조실

이 식자 작화 불교에 대한 압박이 과해지고 유교(儒敎)의 영향이 커서부터 모든 문물은 이데와는 달리지 않고 점차 쇠약해지고 실질적이 되고 이를 볼 때 그릇 같은 것 보므로 미자기화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술상 전지(美術上見地)도 모아서 이 시초의 자기는 확실히 뒤떨어지지만 그러나 이러한 이 시초 자기에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현실적인 생활의 태도를 엿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삼국시대에 우리 나라에 들어 와서 실다 통일시대에 최고봉에 달하고 그 후 고려시대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만족의 유물인 남경 문 불교에 관한 미술은, 이 시초에 와서는 차차 타락의 길을 밟아 보며 가는 불교미술이라는 것은 아무 보잘 것 없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냉한 듯 내한 일이다 특히 우리가 기억하여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초의 유물로는 나무로 만든 공예품이 유명하며 그 중 몇 가지가 이곳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다시아주(亞細亞洲)의 동북(東北)쪽의 대륙에서 나와 있는 반도(半島)입니다. 우리 삼천리 강산이 구라바(歐羅巴)에 있는 여러 나라에 비하여 번기로나 진구(入口)로나 결코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대단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에 있는 만주나 또는 서쪽에 있는 중국 대륙이나 또는 우리 나라와 일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노석아에 비하거나 또는 경을 건너서 6천만이라는 인구가 사는 일본에 비하여도 우리 나라는 결코 큰 나라는 아닙니다. 이리함으로 우리 나라는 항상 문화 문명 발전에 큰 일군이 되어 있었고, 또 일본 같은 나라에게는 스승(師傅) 스물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쪽에 있는 중국 대륙, 북에 있는 만주 또는 제 섬나라인 일본과 항상 싸우지 않으며 아니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초에도 일본에게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위태 다시 멸망될 때까지 애를 쓴 아테에서 단 40년 동안 생존하였던 것입니다. 왜놈들에게서는 멸망하였으나 그 후 북쪽에는 노석아 군대가 있고 남쪽에는 미국 군대가 있어 원만한 국정의 길은 가까울 것 같으면 적도 싸우지 못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총으로 올라가 제 삼조실(第三觀察)로 올라 가면 이곳에는 남방시대(南渡時代)의 유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에 중국 대륙에는 한나라(漢)라는 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는 그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하나로서 그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 때부터

★ 소원 상의 ★
생선의 알

생선의 알에는 인(磷)이라는 불함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인은 체질강(體質強)에 필요할 것이므로 먹이를 알리는 사람은 생선 알을 먹으면 좋다.

비교적 적었으나 지금 철안 부근 일대에 남방시대라는 나라를 세워 약 4백년간 그곳에 머물러 주위에 있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물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두대간과 구라바(歐羅巴) 같은 대륙에서 많은 것을 배워 볼 수 있는 모양으로, 그 때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선 중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물을 배웠습니다. 이 우리 나라의 한쪽에 서 있으면 남방의 문화라는 것은 이리함 의의에 있어서 대단히 재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선 남방의 문화로부터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배워 들었으며 그것이 문화상으로도 우리 나라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임, 한편, 일제시대(日據時代) 우리들이 왜놈들에게 준 단 말과 성과도 같은 문물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약소 민족과 큰 나라와의 끊임 없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방시대는 다는 이와 같이 역사라는 단계를 지 있었으나, 그곳이 어디

것은 오해도 알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부근 토성령(土城里)라는 곳에서 그 유적을 발견하였습니 다. 이곳에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옛 무덤이 발견되어 있고, 그 무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 온 것 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옛기와(瓦)에는 남이라는 글자가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남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한편서면서 마주치는 첫 번째 유적지에는, 그럴 기와나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 온 한나 한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대동강면(大同江面) 석암리(石岩里)에 있는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무덤들은 다 번호(番號)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는 구호분(九號墳)에서 나온 유물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니, 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 때의 한나라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葬)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땅이 넓다 하여서 아직까지 3천년이나 전에 한 땅이 완전히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된 일이 없으므로 한의 중국의 강대(綱) 한의 풍속(風俗)을 알 드리가 됩니다. 그랬던 것이 한의 한인 우리 조선 땅에서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 있는 일입니다. 중국 고대문화 연구에 쓸도 없는 재료(材料)라 하여 세계 학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타 분! 이 무덤 안에서 나온 물건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들은 어디인지 이때까지 우리가 본 물건과는 다른 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오해고 큰 나라입니다.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인지 짐작할 맛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남이라는 이 나라는, 그 중 일부만이 대방(帶方)이라는 나라로도 되어 여기에는 조선에서 나온 물건도 전멸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한의 아세아(亞細亞)에서 나온 유물도 전멸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나라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중앙아세아(中央亞細亞)라 하는 곳은 지도를 펴 보면 알 수 있지만 중국과 인도(印度) 또는 그 서쪽 나라와의 사이에 있는 땅으로서 그 일

부는 사막(沙漠)으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중국에서 인도, 또는 그 한의 서쪽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나오는 유물을 보면 동양과 서양과의 문화교류(文化交流)를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무덤을 보면 그것은 우리가 조선에서 보는 무덤과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것은 희랍(希臘) 사람 같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이 땅과 희랍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속을 알 수 있는 재료도 있습니다. 김승의 가족으로 만든 문동, 솜으로 만든 모자,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비누의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이 삼호실(三號室) 역시 사호실(四號室)에 넣어 가는 남하(南下)에 있는 유물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진 활자(活字)입니다. 이 활



자는 사향을 앞치기 2백년 전
세지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
있었습니다. 활자라는 것이 일
마다 중요한지 어떠한 생각
하여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항상 어리 불이 풍부하는 모
든 제도, 그리고 지금 내가
어리 불까지 알려드리는 이
같은 절국은 이 활자로 된 것
이지요.

제 사호실(第四號室)에는
고구려 벽화와 이씨조시대의
그림과 글씨가 걸려 있습니
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쓰는 제도가 종이나 천인
경우에는 수백년 지나면 써
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랫전 그림으로 이때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은 대단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시대에는 사
함이 좋으면 무덤을 만드는
때 관(棺)을 들어 놓는 주위
막(柵)을 둘러나 벽돌로 크
게 만들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고구려 벽
화인데 1천 몇 백년 동안이
나 땅 속에 가물혀 있었음에

도 황소라고 아직도 색채가
과히 남지 않고 그 웅장한
화풍(畫風)을 엿 볼 수 있습니
다. 그 그림의 대상은 제국
그때의 풍속을 알 수 있는 것
임으로 그 때의 풍속을 연구
하는데 좋은 재료입니다. 문
양의 그림을 계통적으로 연
구하는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이 고구려 벽화를 연구하여야
됩니다. 벽화 위의 그림으로
는 고구려시대의 그림이 몇 점
알려 있지만 이곳에는 주로
이씨조 시대의 좋은 그림을
전멸화하여 있습니다. (중)

조서랑과 슬생원

비룡과 이의 내력 이야기

이 성 표

어느 날 성질이 조금 따름으로
필름거리르자 뚝뚝 뛰는 조
서랑(피동-蠶)과 의점이 많
기로 술술 거어 다니는 슬생
원(이-蠶)과, 성적이 똑같스
러워 늘 땀 흘리는 문신달
(모기-蚊)과, 항상 몸에서

냄새를 풍기는 뉘치 좋은 노
침지(원대-蠶), 이렇자 내
친구가 모여서 노리를 하였
습니다.

오래 술 먹은 꼴이 재미 없
듯이 주자가 많은 문신달과
이쪽대기 잘하는 노침지 사

이애 시비가
일어 났더방
니다.

브러이 몸
이 날레인 문
신달은 달려
뛰기가 무섭
게 비룡한 노
침지를 엿어
뜨리고 사정
없이 대결을

하니, 생원으로 유명한 슬생
원이 보다 못하여 말리려
뻔더랍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한
문도 달랐으나, 성격상으로
차연히, 문신달은 조서랑과
가까이 지냈고, 노침지와 슬
생원과 사이가 두터웠더랍니다.

그때서 슬생원이 말하는 것
이 자연에 맞는 노침지와
싸고 물어 문신달에게 물어
터라지 되어 가니까, 이 때
에서 보고만 있던 조서랑이
가만히 있던 수가 있었습니
까? 제말의 날엔 말꼬로
생원의 아랫배를 거더 찔렀
다. 그만 슬생원은 그 자리에
서 케.오(K.O)를 부르므로,
그 다음은 문신달과 조서랑
은 협력하여 노침지를 잡
기 위하여 무릎 꿇고 주어가
무생이가 되었다. 그 때
노침지는 아픈 다리를
말면서 삼십 옥저를 부르



입니다.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노닐자는 뗏기가 영영 가시질 않아서 붉은 몸뚱이가 되었고, 살생원은 뱀길에 제 일 아랫배에 뱀이 퍼달기 박히고 말았더랍니다.

이상 이야기는, 비록과 이와 모기와 빈대의 습성(習性)을 유습자 나타내인 것일 터이요, 과연 이 네 종류의 벌레들이야말로 사람의 피를 유습한 양식으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미운 기생충(寄生蟲)이요, 좀체로 없앨 수 없는 지긋지긋한 해충(害蟲)인 것입니다.

과거(過去)에 우리들은 얼마나 이 네 종류의 해충으로 말미암아 살생을 고통받았는지 하였습니다가?

앞으로는 물론 문화가 진보되게 따라서 완전히 멸종(滅種)될 것은 사실이며 지금도 미국에서 들어 온 디더리(D. D. T)의 위력(威力)으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이 해충의 무리는 엄연히 우리 주위에 서서(棲息)하고 있습니다.

성서(聖書)에 보면, 일찌기 우리 인류(人類)는 물론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洪水)라는 것입니다.

그 때 가장 선량(善良)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일족(一族)

이 방주(房舟)를 타고 홍수에 밀리어 포류(漂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느 틈에 저 때 뱀이 구멍이 나서 물이 새어 들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 하마리의 큰 구멍이 나타나서 사공을 향하여, "만약 당진네들의 살생을 나에게 준다면 뱀 뱀을 막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뱀속에 있던 사람들은 잠깐 머뭇거렸으나 물은 것잡을 사이 없어 들어 와 목숨이 경각에 달렸기 때문에

"재발 좀 일른 막아 주게"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는 뱀집을 넣어 들어 와서 문뚱이로 구멍을 막으니, 물은 막히기 때는 무사히 목적지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무사히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보니, 뱀사람들은 언약대로 잘못 자기의 살생을 구멍이에게 주기가 정말 싫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더 구멍이를 잡아서 물에 빠뜨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짓가루가 비록으로 변하여 노아의 자손인 우리 인류를 자름게 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록은 구멍이의 원혼(怨魂)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이키(土耳其)의 전설입니다만 여짜 하였던, 비록이란 놈은 맹난한 것이어서 모기나 이 같은 것은

★ 소트 상식 ★

1분 동안의 호흡

어른이 1분 동안 숨쉬는 수는 15~20 회. 한 시간에 평균 150 개론(식심 한말 당회)의 공기를 마셨다가 다시 빼앗게 된다.

한 군데서 양껏 말아 먹으면 그만이지만, 비록은 여기 저기 난식(亂食)을 하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잘기도 어렵거니와 옷 속에 한 마리만 잠복해 있어도 전신에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의 종류는 약 5백 여종이 있다고 하니, 엄청난 것입니다. 내장 우리들이 알기는 사람에게 기생하는 비록, 쥐비록, 개비록, 고양이비록, 땅비록들이나, 사자나 호랑이에게도 고유한 비록이 있으며, 새와 같은 날짐승에게도 비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 양, 염소, 도야자갈에게만 비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英國)의 토스칼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몇 백종의 비록을 모아본 세계 제일의 비록학자님인데, 그 중에서 제일 이상한 것이 북극(北極)에 사는 원종의 비록이라고 합니다. 하우갈 그것을 잡기에 수 십만원의 경비를 들여서 일부러 북극까지 출장을 하였었다는 것입니다. — 계속 —

○애독자 아홉 상타기○

지난 달 54호에 있는 "심송 찾기" 원상의 당월 하신 문은 56호(4월호)에 발표하였습니다. (편집실)

조선시대

박 태원 · 지음 * 김 개성 · 3월



제 3 장 의 대 조 (衣帶調)

一. 령을 기르는 조조

조 조는 의국 조조(市國 趙趙) 사람으로 자는 영머(孟 眉)이다. 어릴 때부터 사냥질 하기를 좋아하고, 노래하고 춤추기를 즐기며, 재주도 비상하기니와, 키도 남보다 컸어 날 사람이다.

용하다는 관상징이 일지 기 그뿐 고고,

“그대는 태평한 세상에는 능(能)한 실하고, 어지러운 시절에는 감사와 양승이요.”

하셨다고 한다.

그 말은 옳았다. 조 조는 과연 어지러운 시절의 “감사와 양승”이었다.

어리 세우(羅漢)들과 함께 군사군 일으키기 불 막을 지 다가 피하여 동진(東 晉)으로 돌아 갔 조 조는, 그곳에서 얼마 동안 쉼과 휴식을 즐기며, 더욱 군사군 잘 고, 또 얼마 세상의 어진 자

담을 불렀다.

조 조의 호는 이름을 전하여 듣고 찾아 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가운데, 특히, 영주(靈州) 사람 순속(荀 續)과 순유(荀 攸), 동진 사람 정유(程 昱)와 박가(郭 嘉) 같은 의는 모두 아는 것의 말로, 생각이 늘기운 모사 진(陳)이요, 진(陳) 사람 모개(毛 玠), 의(魏) 사람 수금(于 禁) 같은 의는 모두 무예가 남에게 뛰어난 장수들이다.

너무기 이후 본이 어느 날 피치고 온 진(陳) 사람 정유(程 昱)는 장으로 권하여 쓰 온 장사였다. 누계 팔십 근(斤) 되는 정국(鐵 戟)을 왼 손에 하나씩 들고, 말을 달리며 나눈듯이 논질 기, 조 조는 그만 말을 잃고 부끄러웠다.

그러기 갑자기 백병의 조 조, 불마 말의 정유 같은 본 기가 불 쓰러져의 끝이, 조 조 군사군 말과 말이 길을 모아

무릎이 꿇으며 하나, 서로 세찬 타격을 당하느라 같이 한다.

이것을 보자 긴 원한 풀 것 에지 뛰여 내리, 군사군을 쫓아 붙이질 다, 조 조 같은 것들을 잡고 파멸 가운데 있다. 바람은 더욱 세가져 불일 으나 진(陳)가 한 손으로 고 것은 것에는 다시는 손을 얹는다. 조 조 이하로 온 장수와 군사들은 다들 물 내 놓았다.

이 때, 근처 고을의 장수의 의 정유(程 昱)의 말이 무의 백성들을 피움, 조 조는 설 위로 진(陳)을 잡아 조 조를 이끌고, 나가서 정유를 죽 데가 조 조는 비록 진(陳)의 정유는 어기 세기적 마를 지나 모이른 무인들이다. 조 조가 음정을 참은 조 조의 조 조를 당할 길이 없다.

조 조의 피우는 길 지 조 조의 고기 피워가 마를 조 조 무하 두 백병들이 같이

으로 모일하였다.

그러나 아아 언덕을 넘어
라 할 때, 곧 뒤로부터 한 대
군사장 나와 길을 막는다.
눈을 들어 보니, 앞에 전 장
사는 철장이 팔 짝이요, 쇠려
가 부어아름은 피는 사람이
바로 위풍(威風)이 높남(飄
飄)하다.

모퉁의 피수는 몸 장을 풀
어 잡고 그에게 달려 들었다.
그러나 억힘도 없는 일이다.
만작 한 함에 그 장사의 손
에 사로잡히고 마니, 남은 도
둑들은 앞을 다루어 항복하
기 되었다. 장사는 바로 의기
양양하여 그 무리들을 모조
로 삼 팔자기로 들고 들어 갔
다.

조금 뒤에 절 위가 모퉁의
뒤를 좇아 언덕 위까지 와 보
니, 남에 있는 장사 하나이
남서서 길을 막는다.

절 위는 물었다.
“여보 이놈 황천적이냐
?”

그 장사가 웃으며 내남한

“황천적의 무리는, 수 백명
을 내가 모두 잡아서 저 산
중 속에다 감추어 두었다
!”

“내가 이미 사로잡았으면
이제 하여 내키더 마치지
않는다?”

“내가 만약 다하고 싸워서
이기지나 한다면 내어 주
것이거든……”

그 말을 듣고 절 위는 모
퉁 노하여 쌍구(雙鉤)를 내
어 부르며 그 장사에게로 달

려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시(辰
時)로부터 오시(午時)에 이
르도록 싸웠으나 죽지 송부
를 나눌 수 없다. 잠시 뒤 위
에 서서 찬바람 어울어져 싸
워 마칠내 황혼이 되었다. 그
래도 결말이 나지 않는다.
두 사람은 싸움을 내일르 밀
고 각각 헤어져 돌아갔다.

절 위에 가서 이 말을 들은
조 조는 그렇듯 땀 같은 장
사들 기어코 자기 수하에 거
두고 싶었다. 그때 그 날 밤
으로 가만히 자람을 시켜 언
덕 아래다 함정을 파 놓게 한
다음, 날이 밝자, 다시 절 위
를 보내서 명음을 청하게 하
였다.

장사는 뜰 말을 붙어 나왔
다. 절 위는 조 조의 불부대
로 두어 할 싸우다가는 문득
말 허의를 풀러야 말아나고,
달아나다가는 다시 물쳐 서
서 싸웠다. 장사는 그것이 저

를 꼬이는 수단인줄은 모르
고, 자꾸 절 위의 뒤를 좇아
가다가 마침내 말을 탄 채로
함정 속에 다시 비렸다.

군사들이 그 장사를 갈락
질마하여 조 조 앞으로 끌고
가자 조 조는 부라나게 자락
에서 내려와, 군사들을 꾸짖
이 꾸리치고, 몸소 그 묶은
것을 풀어 주며 풀었다.

“장사의 생명이 넘치오?”

“저는 조국(魏國) 사람 되
지(管 籍)을 사다.”

“더 저다? 내, 높은 이름
을 들은지 오래요, 의령소
? 대저 항복 않하리오?”
“저는 지체 함고 대답하
였다.

“진실로 저의 원하는 바일
니다.”

이리하여 조 조는 관곽에
드른 땀 같은 장수들 또 한
명 얻었던 것이다……



二 모든 권세는,
조 조의 손에

이 때 조정 형편은 어떠하였던가? —

천자를 침략하여 간악으로 도움을 옮긴 뒤에, 동탁은 더욱 나라 정사를 혼란하게 하여 천하 백성들의 원망을 샅대로 사더니, 그것도 마침내 는 끝나는 날이 있었다.

곧, 나라를 근심하는 선하들이 가만히 계교를 내어, 동탁과 그의 심복(心腹)인 이표의 사이를 이간(離間)하여 놓고, 다음에 이표의 손을 빌어 동탁을 죽인 것이다.

이러하여 나라를 해치면 또 꼭 동탁은 죽었다. 그러나 동탁이 죽었다고 곧 천하가 바로 참되지는 않는다. 동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각

(李傕)·곽사(郭汜) 두 장수가, 죽은 동탁의 원수를 갚는다 하고 다시 난리를 일으켜, 마침내 는 지뢰를 손에 나라 권세를 잡아 버리고 만 것이다.

이 작은 대사마(大司馬)가 되고, 곽사는 대장군(大將軍)이 되어, 도무지 세상에 두터운 것이 없다. 살리고, 죽이고, 주고, 뺏는 것을 지

외 마음대로 하니, 정사의 문란하고 백성의 피름기가, 전 날 동탁의 시절 보다 오히려 더하다.

나라를 근심하는 선하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무모함을 없애 버리고 나라를 바로 잡나? — 하고 궁리를 하였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그만한 힘이 없다. 그래서 이 틈에도 동탁이 죽어 버린 모양으로, 꾀를 써서 이 곽사와 곽사의 사이를 이간하여 놓았다. 곧 지뢰를 꺼리 서로의



심하고 미워하여, 마침내 는 물고 물고 하지 반쯤이 놓은 것이다.

무모들은 매일 같이 정박에서 싸웠다. 양편 군사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고 또 상하였다. 그러면서도 싸움은 열사리 끝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것을 떨거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일에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이 그 동

에 내거나지를 못하는 것이다.

마침내 백승 있는 천하가 가만히 천자에게 아였다. —

“천하 동탁을 치며 조조를 일으켰던 조조가 관상문(山東) 땅에 있을 때, 가장 군사가 강하고 힘이 넉넉하다 하였더니, 이 조조를 불러 손에 들면, 이 곽사와 곽사 무모를 없애기가 어떻게 할까 하였는데……”

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조를 불러 물으므로 조조가 이 조조를 불러 무모를 이 세가, 조조에서 군사 모으고 여전사 모으아 끌어 온군히 힘을 모으며 천하 세를 살피고 조조는, “관 사를 이 곽사

무모들을 치 없게고, 나라 정사를 바로 잡으다 — 하지는 천사의 조칙(詔)을 받다.

(마침내 조조는 이도였다……)

하고, 죽고 군사를 모으 일으켜 가지고 조조로 갔다.

조조가 천하의 조칙을

팔고 지피를 치러 온다는 것을 알자, 이 각의 좌사 두 도독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일이 어떻게 되고 모나, 지휘관의 싸움은 불예요, 우선 조조의 대군(大軍)을 막아낼 일이 문제다. 그들은 곧 화태하고 짐을 갈라어 나아가 조조의 군사를 맞았다.

그러나 그들은 물론 조조의 적수가 아니다. 수하 장수들을 이끌, 명이나 내쳐 보였으나, 조조의 정공 허적과 전위 구 장수에게 모두 죽임을 받고 마침내 오지 못하였다.

두 도독은 뒤 비하여 보지 못하고 산을 넘어 멀리 도망하여 피했다.

철자는 조조의 뜻을 자유하다 하여, 사대교위(司隸校尉)의 비술을 내렸다. 그러나 "어찌어운 사건의 장수한 영웅"인 조조는 그만한 것으로 마음이 족할 수가 없다.

조의 육성은 있다. 한 모사가, "허포(許都)로 가시면 장군께서 반드시 흥(興)하시리라."

하고 일러 주는 말을 듣자 그는 마음에 은근히 기적취, 곧 철자를 전하여 도움을 의도로 옮겨 비했다.

철자가 어찌 생각하시든, 나라와 백성이야 어찌 되든, 오직 자기 한 몸이 갈 피려라는 말에, 조조는 이말뜻 도움을 또 옮길 것이다.

철자는 물론이요, 조조의 모든 신하들도 다를 옮길 뜻

이 없었으나, 모두 조조의 정성을 추대하여, 누구라 할 사람 같이 나서서 반대하는 자가 없었다.

허포에 이르자, 조조는 세 명이 궁전앞 이쪽하고 설을 쌓았다. 그리고, 자가 스스로 대장군(大將軍)에 승상(丞相)을 겸하여, 정치(政治)와 군사(軍事)의 모든 전권을 손에 잡은 다음, 자기 수하의 여러 모사와 장수들을 다 각기 비술을 주어 주었다.

三. 의대조 (衣帝詔)

이느 날 일이다.

조조는 조정의 모란, 만천과 자기 수하의 장수들을 거느리고 허적(許都)이 곧 곳으로 사냥질을 나갔다. 철자는 그러한 놀이를 즐기하지 않았으나, 조조가 같이 청하므로 하는 수 없이 따라 나섰었다.

철자가 조조와 만 피리를 가르면서 하여, 여러 장수들의 사냥하는 흥취를 보시는 중에, 문득 근처 가시덤불 속으로부터 큰 사슴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편으로 달려갔다.

철자는 곧 팔에다 활을 먹어, 일하여 세 번 쏘으셨다. 그러나 세 번 다 빗나가고 맞지 않는다.

철자는 절에 있는 조조를 불러 보셨다.

"어더 경(卿)이 탄 탄 쏘아 보오."

분부를 받아, 조조는 구대

이 천가의 보조궁(寶鼎宮)과 금비전(金鉞箭)을 빌어 가지고, 한 번 쏘아 탄 면에 그 등을 맞추었다. 사슴은 그대로 풀 밭에가 보오로 쓰버렸다.

이 때,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멀리서 사슴 등에 쏘인 금비전을 보고, 철자가 쏘아 맞친 줄만 여겨, 팔 소리를 높이 만세를 불렀다.

조조는 말을 끄며 내어, 천자의 앞을 막아 서서, 모든 사면들이 천자에게서 올라오는 치하의 만세를 제가 받았다.....

헌제(獻帝)는 슬픈 임금이시다. 아끼 천자의 위에 오른 위로, 여러 차례 크나큰 난미를 겪으셨었다. 불 락이나 이 각, 각 사나, 모두가 이품만 들어보 몸서리가 처지는 도독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조조는 전날의 동락이 보나도, 미하였다.

그 날, 헌제는 허적에서 돌아오시자, 사당에서의 조조 거동을 생각하시고, 마음에 심히 걱정하고 분하였다.

(신하들이 천자에게 올리는 치하의 만세를 제가 나서서 받다너.....)

조조가 반역(叛逆)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그 일 한 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도복을 허투르도 팔려 없어야만 하겠다!.....)

헌제는 그렇게 생각하시었으나, 이제 누구와 이 일을

의논하고, 누구에게 이 소원을 맡겨야 할 것인가? 조정 내 각급 차 있는 것이 모두가 조 조의 심부이치 천자의 심하는 없었다.

이 일은 가장 비밀한 가운데 기지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까닭 잘못하여 일을 일으키기 전에 들어나고 쓰면 큰 일이다.

원제는 여러 날 궁리하고 생각한 끝에, 거기장군 동승(車騎將軍 董承)에게 이 크나 큰 일을 부탁하리라 결심하였다.

동승은 그 누이가 궁중에 들어 와 귀비(貴妃)가 되었으니 곧 나라의 아픈이요, 또 그는 충의(忠義)의 마음의 누더운 사람이다. 천 번, 이 각각 사의 난의 때에도, 백양 천자를 보호하여 바랐다.

동승이면, 반드시 나를 위하리. 동승을 아끼지 않겠지—하고, 원제는 확 믿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대저 무슨 방법으로도 내 뜻을 동승에게 전할 난 말하고?……)

조 조의 심부는 조정에는 물론이요, 대궐 안에도 크락 차 있었다. 궁중에서 생긴 일

은 어떠한 해수로서 않은 것이 마도 시각을 지체 않고 그냥 조 조의 귀로 들어 가는 것이다.

원제는 다시 궁중의 생각한 다음에,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손가락을 깨물어 그 효로는 피로 비단 조각이다. 밀조(密詔)를 쓰지었다. 그것을 보 광후가 옥대(玉帶) 속에나 감추 같이 봉하여 넣으신 것이다.

이튿날, 원제는 동승을 정내(殿內)로 불러 불이셨다.

천자의 부도심을 받아 들숨이 들어 오자, 원제는 그를 데리고 태묘(太廟) 안으로 불이 가셨다.

불향 제례(祭香 再拜)하기를 마치고, 원제는 한 고승(漢 高祖)의 용상(容像) 앞으로 가셨다.

“고황제(高皇帝)께서는 어떻게 이 나라의 기업(基業)을 세우셨던 것이요?”

천자의 이 말씀에 동승은 크게 놀라,

“제하께서는 천(臣)을 괴롭히시는 말씀이오니까? 성조(聖祖) 사직을 어찌 모르고 살다 하시나이까? 고황제

제오서 강가 뱃사공의 미천(微賤)하신 몸으로 어찌 이런 시점에 차 좌주 상을 맡고 일어나서, 삼 년간 내 권(權)아래를 받다하고, 오 번만에 조(趙)나라를 멸하여, 또더어 삼국(三國)을 전할 이 기업을 세우신 것이 아니옵니까?”

“음소 정(朕)의 조종(祖宗)은 그렇거나 성공하지 있는데, 자손들이 무슨 어영뿔 나락하니 여짜옵길 하지 않겠소.”

원제는 다시 그 양열의 주동신(勁臣)의 좌상(高祖)을 가리키시며,

“이 사람은 잘 말(張良)과 소하(關何)가 아니요?”

“그렇나옵시다. 고황제께서 그렇듯 기업을 세우신 것이, 진실로 이 두 사람 중선의 힘을 빌리신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원제는 고개를 돌리키어, 서종(侍從)들이 서 편에 밀려 떨어져 있는 것을 보자, 가만히 동승에게 말씀하였다.

“이 각각 사의 난의 때, 경의 힘을 힘하여 수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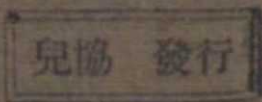
새로 나온 “아협”의 동화집

왕자와 부하들

조 철현 지음(그림 김 의환)

국립 64페이지 ★ 격판 100원 (적발종료 10월)

이 책에는 ▲왕자와 부하들 ▲장군의 미련 ▲바다 밑을 달린 용 ▲장군과 ▲떡갈 콩주 ▲한 방구 역 ▲이렇게 이것 거지 용화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들은 모두 세계에서 그분난 이야기들입니다. 깨끗한 글씨에 삽화도 크므로 크므로 절 의한 전생의 그림도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책장에서 파는 중이니 속히 구하여 보십시오.



“바가 크건만, 아직 그 공을
 잃지 못하였기로, 이제 이
 옥대의 금포(錦袍)를 내버
 는 터이니, 정은 무더 언저
 까지나 이 금포를 입고 이
 옥대를 띠어, 항상 섬의 좌
 우에 있듯이 하오.”

입고 계시던 금포와 더고
 계시던 옥대를 풀러 등승에
 세 내리고, 천재는 다시 한마
 더 손권히 당부하셨다.

“정은 무더 집에 들어가서
 사색히 보고, 섬의 뜻을 저
 의려히 알도록 하오.”

물 같은 천자의 그윽한 뜻
 을 심적하여, 깨리신 금포
 를 입고 옥대를 띠 다음에,
천재에게 하직을 코하고 태
 보에서 나왔다.

이 때, 번짚, 천자가 태보
 안에서 물 술과 함께 말씀하
 고 계시는 정교가 조 조의
 편에 들어갔다.

조 조는 마음에 의심하고
 눈우히 열내로 향하여 들어
 가다가, 마침 대궐에서 풀리
 나오는 물 술과 궁문(宮門)
 앞에서 만났다.

조 조는 물었다.

“어디로 무슨 일로 들어 오
 셧습니까?”

“정기께서 부르시기로 한
 이 왔더니, 금포와 옥대를
 내리치려이다.”

“그것은 무슨 일로 내리신
 것이오?”

“천상의 조그만 공포를 생
 각하시어 내리신 것이오.”

“아이, 그 옥대, 나 좀 볼
 지라!”

물 같은 천자가 태보 안에

우리 학교 교 가

개성 만월 국민 학교

달과 같이 맑고 술 같이 푸른
 우리는 어린씩 커지는 싹들
 함꼐 모여서 서로 손잡고
 절디올게 자라는 만월의 동무
 붉은길 끝없으나 햇살을 높이 들고
 온세상 밝히세 모두 힘쓰세
 만월 만월 만월 그 이름 만세

배우고 일하며 함없이 뻗는
 우리는 새일군 훌륭한 일군
 언제나 앞으로 힘차게 나가
 함맘으로 자라는 만월의 동무
 붉은길 끝없으나 햇살을 높이 들고
 온세상 밝히세 모두 힘쓰세
 만월 만월 만월 그 이름 만세

용기와 굳은뜻 자랑 하는곳
 우리는 밝은빛 앞길의 동무
 날타는 붉은망 한태 모여서
 씩씩하게 자라는 만월의 동무
 붉은길 끝없으니 햇살을 높이 들고
 온세상 밝히세 모두 힘쓰세
 만월 만월 만월 그 이름 만세

서 하시던 말씀으로 밀우어,
 내리신 의대(衣帶)속에 필연
 동고 밀조가 들어 있으리라
 고 침작하는 제법애, 일문 풀
 려 주지들 못한다.

조 조는 그 모양을 보자 더
 욱 의심하고, 리우에게 명하여

본 관의 오대자가 손에 들고
 함꼐를 살피어 보더니 빙그
 레 웃으며,
 “와일 좋은 옥대요.”

다시 금포를 벗으라 하여,
 역시 거세의 살피 보다가 또
 또 물리 주었다.

동 승은 받아서 다시 몸에
구르고, 남보르게 활숨을 보
던 다음에 심으로 돌아 왔
다.

이날 밤, 동 승은 밤에 졸
로 잤다. 천자가 내리신 꿈포
를 내어다가 자세히 살펴어
보았으나, 아무 것도 없다.
육대 역시 두 번 세 번 보아
도 그대로 침상한 육대일 뿐
이다.

(천자께서 내게 꿈포와 육
대를 내리시며, 돌아가 각
세히 보고 나의 뜻을 저마
리니 말라 하신 말씀이 필
연로 깊은 뜻이 있을 것인
데, 이 어찌 된 일일까? ...
...)

육대를 탁자 위에 놓고 다
시 이리 보고 저리 살펴다가
동 승이 피곤한 것을 여기저
못하여 탁자에 의지하고 잠
잠 졸 때, 꿈포를 제도 등불이
육대 위로 쓰러지자, 버 입을

바칠 형질을 띠운다.
동 승이 잠착 슬라 열린 꿈
을 비비고 보니, 불에 탄
자리에 된 비단 조각이 들어
나와, 그 위에 은은히 피곤
적이 보인다.

(오오, 이 찾아로구나! ...
...)

동 승은 곧 칼로 어기어 들
고, 천자의 밑조를 끄집어 내
었다. 읽어 보니, 그 뜻은 내
장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조 조 노복의 견제를
회통하는 것이 나날이 심
하여 천하가 위태로운 지
경에 이르렀으니, 조정의
대신이요 또한 국적(國
賊)인 경은 부더 충의렬
사(忠義烈士)들을 모두
어, 조 조 이하로 모든
간사한 무리를 없애고 나
타를 다시 편안하게 하
라.....

동 승은 읽고나가 날몰어

버 오듯 한다. 그는 조 조
조 조를 멸하여 천하의
을 편안하게 하여 천하의
고 마음에 달게 행치라
그리고 불은 자기를
침으로 질 수 있는 일
이다. 동 승은 작극의 문헌
가운데, 팔말 나라를 위하
서는 복숨을 아끼지 않는
의천자를 구하여 보았다.
그로서 일어나 뒤, 그의 의
(義狀)에는, 동 승·왕자
(王子服)·충첩(柳翹)·오
천(吳頌)·오자라(吳子
馬騰), 그리고 유비
의 이름이 올랐다.

— 계속 —

- △자후(諸候) : 천자에게서 받
을 땅아, 그 지방에 사는 백성을
정배하던 사람.
- △모사(謀士) : 열에서 좋은
려를 내어 도와 주는 사람.
- △잔당(殘黨) : 남은 무리들.
- △진시(辰時) : 아침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의 시각.
- △오시(午時) : 오희 일곱시부터
아홉시까지의 시각.
- △심복(心腹) : 아주 가까운
사람.
- △이간(讒間) : 두 사람의 사
위를 멀어지게 하는 것.
- △대사마(大司馬) : 대장군(大
將軍) : 모두 높은 벼슬의 이름.
- △조적(詔勅) : 임금의 봉부 등
함은 기록한 말서. 조서(詔書)라
도도 한다.
- △감(殿) : 임금이 자기를
미끼 하는 말.
- △경(榜) : 임금이 명아를
모는 말.
- △보조공(寶副公) : 금피첩(金
符) : 임금이 쓰는 필자(符)



△황비 (黃妃) · 가장 높은 내
신(內人).

△밀조 (密詔) · 비밀히 내린
조치.

△태묘 (太廟) · 왕실의 사당.
종묘(宗廟).

△문향제배 (焚香再拜) · 작은
제우를 두 번 갖하는 것.

△한 고조 (漢 高祖) · 고황제
(高皇帝) · 한 나라의 시조(始祖).

△가업 (家業) · 대대로 전하는
업.

△용상 (容像) · 화상(畫像)과
같다.

△공신 (功臣) · 나라에 공적이
큰 신하.

△사종 (侍從) · 임금을 모시는
신하.

△부포 (綈袍) · 비단으로 만든
옷으로.

△옥대 (玉帶) · 옥으로 만든
띠.

△의대 (衣帶) · 옷과 띠.

△국戚 (國戚) · 임금의 일가.

△충의열사 (忠義烈士) · 충의
의 땅을 이 누러운 선비.

△의정 (義狀) · 행서하는 조적
으로 제각기 이름들을 적은 문장.



7. 사 자 주 요 설

사자가 들어 있는 울 앞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
니다. 사자는 누워서 잠을 자
고 있습니다.

“사자 저녁 먹이는 것을 보
려면 하직도 반 시간은 기다
려야 할 모양인데, 그대보 어
기서 기다릴까 어쩐가?” 하
고 삼촌이 시계를 꺼내 보며
서 물었습니다.

“기대려요, 네. 기다리는
동안에 사자 얘기를 자세히
해 주세요.” 하고 옥미가 청
했습니다.

“그럼 크떨까! 그러나 사
자 얘기를 자세히 하라는 것
은 좀 어려운 주문인걸! 얘
기가 끝이 없을걸! 왜 그런
고 하니 내가 원전에 사자 사
냥을 다닌 일이 얼마 말이
야.”

이 말을 하고 있던 사자가
들었는지 이 때 눈을 뜨고 앞
팔로 눈을 비비더니 눈을 깜
박한다. 이것을 보고 삼촌은
웃으시면서,

“아마 이 사자가 집에도 사
자 사냥 자랑 얘기를 여기서
들은 일이 있다모다. 물론 별
사람이 될 소릴 다 했겠지만
.....”

과리가 성가시게 구는 사

자는 또한 번 눈을 깜박하였
습니다.

“사자님이 내 얘기를 어떻
지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
여간 내가 내 눈으로 잠림 속
에서 사자를 본 것만은 사실
이니깐! 사자란 감응은 모
듬. 그야 흥메스면 침상은 하
니야. 밤에는 몰라도 낮에는
.....”

사자는 아랫소리 없이 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삼촌의 얘기에 별 흥미를 느
끼지 않는 모양이지요. 삼촌
은 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사자는 감응 중의 왕이라
고 하지. 그러나 사원에 있어
서는 그렇게 웅대한 동물은
못돼. 저 사자는 그래도, 잘
생긴 편이지만, 사실 아프리
칸 삼림 속에 사는 사자치고
는 이런 동물원에 와 있는 사
자처럼 잘 생긴 사자가 드물
어. 몸에 털도 저렇게 곱고
꽃하고, 아프리카 사막에 사
는 사자는 대개 누런 털이 어
기 저기 조금씩 붙어 있을 따
름이지. 그러나 눈안은 어떤
때 가워 있는 사자와는 달라
서, 가까이서 보면 빛 눈 같은
기운이 돌고, 사자가 몸을 다
치거나 성이 났을 때에는 그

바로 접기

한 고 역사 이야기 “과고다 공
침” 장. 이야기에 “열나라”는
“열나라”, “원각사에 세웠다...
...” “노제종 본사(魯溪宗本
寺) 흥복사(興福寺)에다 세웠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야기는 하나의 전설에 지나지
않고 사실은 그 후, 이 흥복사
는 역사(歷史)가 되고, 그자리
에 약 160년 전, 이조 세조 왕
금 때 지금은 없어진 원각사가
 세워진 것이며, 물론 13층 탑은
조선 성종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
시."

"그 예전 그만 하구, 아저씨
는 그대 사자를 몇 마리나 죽
이셨어요?"라고 광호가 물
었습니다.

"글쎄, 나는 사자를 죽이고
살리는 법이란 사자에게도 죽
을 죄가 많달까야. 사자 참
마리가 하룻밤 사이에 폐지
택 마리를 물어 죽인 기록이
있거든. 또 사자가 늙어지 이
가 타지던 다른 짐승을 잡아
먹을 기운이 없으니까 자주
사람만 잡아 먹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놈들이 밤에나 기
를 쓰며 낮에는 의관에서 사
랑을 만나도 달려들지 못하
고 울을 피하는 법이지."

"이 사자는 왜 죽었는지 없나
요?"

"응 이진 암컷이야. 암컷은
죽었어 없어, 그리고 새끼를
죽이지 사랑하잖. 또 사자는
제구가 많아서 자전거를 써
갈 때는 싸아티스 사자도 있
지."

그러나 잠손이 말을 계속
할 수 없도록 이주성에게 물
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구관 이 곳
으로 구둑구둑 모여 들었으



며, 사자들도 밭에서 쪼네네가
된 것을 알고 흥분야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우렁찬
소리들 막 걸렸습디다. 그 때
멀그렁하고 외로운 여는 소
리가 나더니 죽이 부 사람이
구두마치, 고기를 가득 싣고
들어 왔습디다. 그 중 한 사
랑이 의복처럼, 암사자를 번
함으로 압도해서 보내고 부
를 지어질 죄분을 막 달았습
디다. 사자에게 말을 떠날 때
에는 이렇게 따르다도 자주

고 먹어야지, 한 곳에서 먹이
나가는 식으로 많이 먹었다고
싸움이 나지 큰 일이 벌어졌
다고 합니다.

필참 수에서, 사자들은 암
컷이, 죽었어 으르렁 으르렁
걸렸습디다. 그것들이를 죽
지어서, 필참 앞으로 돌아와
야 주니까 사자는 잡아서 먹
근거리며 먹었습니다. 울음
심은 이끼를 먹고 암사자 사
자들이 고기 먹는 것을 지켜
러 보았습디다.



○송아지
재봉이 "얼마, 초는 허드디 있자
물기진 허버니를 입았."

?"
암마 "그럼 이거 있나."
재봉이 "아냐 이걸 초를 보루자 모
주 실을 잔길 풀러주, 다니는걸 뭐
!"
(서울 무학 국민포 김 송덕)
○공
송덕 "천나 나로 이거 함함의 갠
물기진 허버니를 입았."

형 "이이, 그럼 나을 게우적, 어찌
너져, 할 관함이 있는바."
(서울 상모로 이 영옥)
○말 리
익은 "어머니 어찌 되세요?"
어머니 "말해 사자 장의 간다."
아들 "그럼 종일 함을 쳐오르
오세요."
(서울 무학 국민포 김 송덕)

소학생 3월호



구락부

△여러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제 "소학생"에 한 달이
끼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같은 일이나 되는지 모르시지만
알려주십시오. (서울 방산교 5년
홍준일)

△"소학생"의 새 봉우가 되십니
다 참 반갑습니다. 열심히 배워
올랐던 자만이 되십시오. 같은 60
원입니다. (기자)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이 처음 나올 때는 어느
책사로 먼저 잡니까? 그리고 "소
학생"이 나오면 라디오나 신문에
반포해 주십시오? (서울 을지로
5가 이기식)

△중로 2가에 있는 문장각(文章閣)
으로 나옵니다. 제로 나오는
"소학생"은 신문에 반포하셨습니다.
(기자)

△여러 선생님 처음으로 열화 여
즐겼습니다. 저는 "소학생"이라
는 말은 전부 다 많이 들었지만 재
미가 없는 줄 알고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장, 것을 빌려 모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말과 장식이 많
아 지금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그
런데 "소학생"이 나오는대로 저
의 집으로 보내줄 수 없습니까?
(서울 사범대학 부속 국민 학교
이영규)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을 새로
발견하고 기쁨에 넘치는 얼굴과
마음으로 "소학생" 나오기를 고대
하시는 종류의 모양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책은 따로 보내드릴
수 없으니 "소학생"을 파는 책사.

중로 2가에 있는 문장각(文章閣)
에 가지 바랍니다. (기자)

△"소학생"을 빌려주시는 여러 기
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작문
을 해서 두 달만 써 처음 구락부
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저는 영원
히 "소학생"과 친하겠습니다. 저
는 요번에 송학교에 갑니다. 그
러니까 "소학생"에 같은 소식을
실려 주십시오. ② "소학생"에 독가
를 우대 영구히 "소학생"을 사랑
합니다. (서울 본업 학교 원수장)

△훌륭한 작품을 많이 보내주십
시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중
학교에 붙으셔서 석색한 조선의
일군이 되십시오. (기자)

△"소학생"을 빌려 주시는 기자
선생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
런데 "모르스워드"를 보는 책 자
가 볼이 보는 것입니까? 볼이
보내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의
뒤 궁금합니다. 속히 알려주십시
오. (경매, 대한 국민교 김홍복)

△우선 저 등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모르스
워드"는 혼자 집에서 공부할 아
볼이 보는 것입니다. (기자)

△"소학생" 편집부 선생님! 여
말 훌륭한 "소학생"을 볼 때마다 편
생님의 애쓰시는 데 비해서 깊이
감사합니다. "소학생"은 아주 장
치로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부
행할도 될 거예요 합니다. 많은 사
사람을 위하여 알길은 도와주십
시오. (서울 상암동 나동호)

△"소학생"을 위하여 그리던 열렬
히 절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분을 위하
여 힘껏 일하겠습니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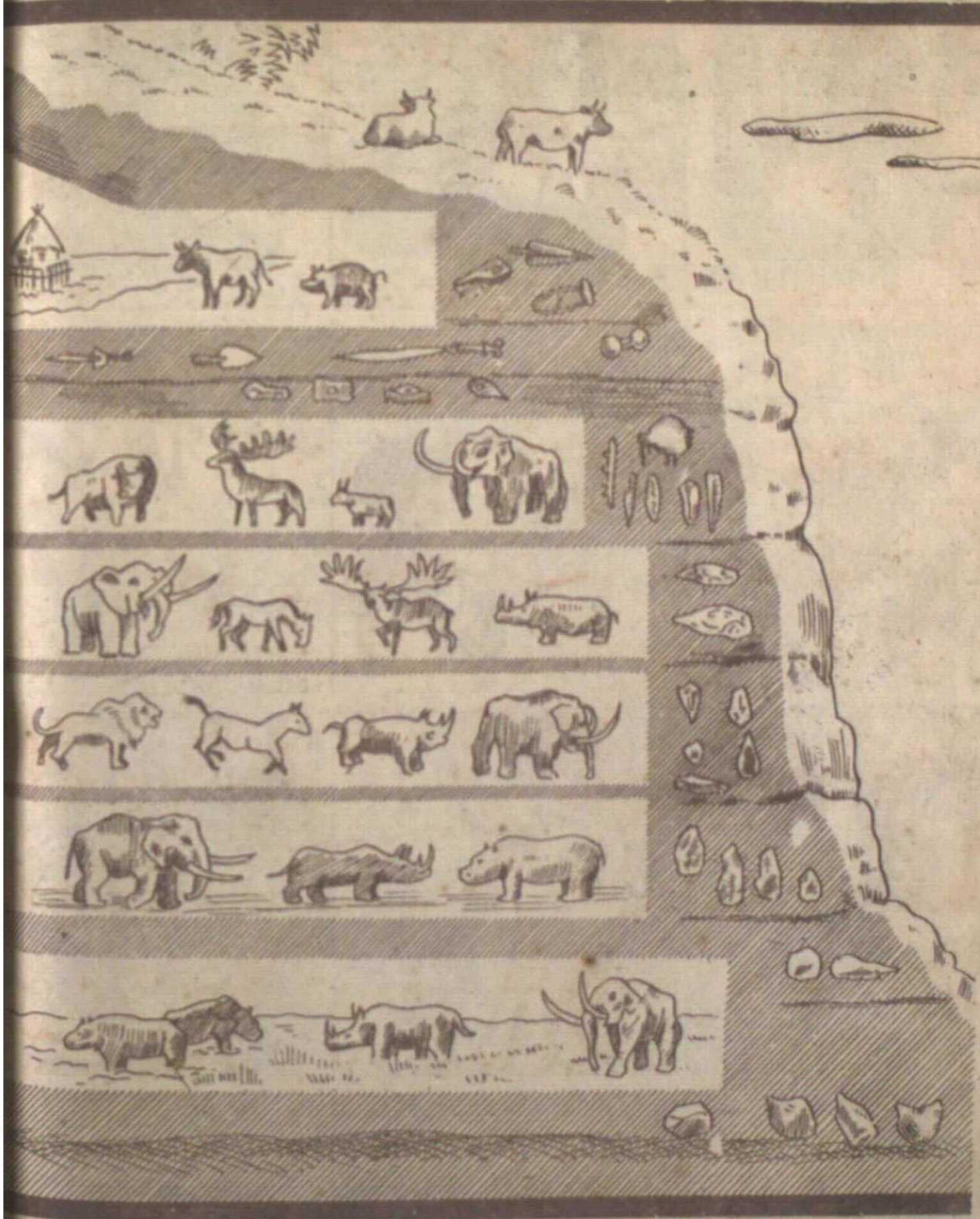
소학생

★우리는 "소학생"이란 말을 여러 번
들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렇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소학생"이다. 라구나 "소학생"
라는 것이 몇 개월이 넘. 여러 분
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직접 배
우로 알고는 쓰러히 상상으로 못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에 실은 "우리 소학생 지갑의"
기사는 참 흥미로운 소식 말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지갑의는 작년 연말에 "이월"
주최로 열렸던 모임에, 필자들
그 기사를 지금에야 실게 된 것
을 그 때 나와 주신 여러 분을
에게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소학생"을 편집해 볼 때부터 나
래 드린다는 것이 처음부터 지
급까지 우리의 번갈 없는 생각
인데, 요직은은 열렬하게 불경
같이 몰다시 우리의 "소학생"도
할 수 없이 1월호와 2월호에 실
달아 3월호에 올랐다. "소학생"
을 줄여 나가는 데 어릴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아
쁘게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김
은철)

1946年5月1日發行
소학생 · 값 60 원
3 원대 ★ 제 55 호
發行人 尹石宜
印刷人 主幹 尹石宜
發行所 兪 協
1947年5月22日 發行
서울 鍾路 2街 永保 印刷
電話 [兪] 0970 號 · 0402 號
總發賣 乙酉 文化社
小賣店 ★ 文章閣 ★ 鍾路 2街

★ 許可 證 號 第 106 號 ★ 許可 日 字 1946 年 7 月 5 日 ★ 第 3 種 郵 物 認 可 日 字 1946 年 4 月 22 日 ★



생물의 나이

아주 오랜 옛날에는 우리 인간 조상들은 어떠한 생활을 했으
생물(生物)들은 어떠한가?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
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강은 짐작할 수가 있다. 인간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생겨나서부터
매략 135만 년이 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두께 30cm 가량의 지층
(地層)이 되는 동안을 100년으로
계산한 것으로, 학자들은 땅 속
에서 나온 화석(化石) 유물(遺物)
들과 지층에 의해서 먼 옛날의 생
활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옥동이



4
크림 이 영춘



1 이 생선왕
어서 할아버지
데에 가져가 마귀



2 이크 이름
잘 못걸었다

웅-윙-윙



3 볼록크 아 옥동이
너석이 가진 고기를
빼앗아 먹어라

저 나쁜놈
를 뵈라

씨-기
직여라 씨-기

우-윙
우-윙



4 하하하
하하하

아이쿠 무시 무
시 한 놈이냐
어서 도망하구



5 성가시게 좌꾸
따라 오네 좌
먹고 따라 오기 마



6 이렇게 빼앗기다 가
는 한 마리 남지 않겠
는걸 어서 이 나무에

우-윙
윙



7 저놈이 가
지 못할 양은
니 어떻게
해야 할야

의-의



8 옮겨
좋은 수가
있다



9 나무에 걸린
이 연을 가
지고

!?



10 어디 떠워
보자 응



11 인제는 편 잠잠
치 어서 가야 겠나
하하하